

세 경 본 풀 이 의 연 구

- 양산백전과의 비교를 통하여 -

指導教授 張 籌 根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 함.

1989年 12月 日

京畿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口碑文學專攻

조 현 희

조현희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徐楠春 (印)

審査委員 朴正根

審査委員 張主근

1989月 12月 日

京畿大學校 大學院

목 차

1. 서론	1
1.1 문제의 성격과 선행연구들	1
1.2 자료소개와 연구방법	3
2. 양산백전과 세경본풀이의 비교	8
2.1 양산백전의 서사단락	8
2.2 세경본풀이의 서사단락	13
2.3 두작품의 비교	23
2.3.1 두작품의 공통점	23
2.3.2 두작품의 차이점	25
3. 여타 동계작품과의 비교	37
3.1 함경도 무가, 문굿과 제주도 자청비 이야기	37
3.1.1 함경도 무가 문굿의 서사단락	37
3.1.2 제주도 자청비 이야기의 서사단락	40
3.2 중국의 양축설화와 태국의 따오싸른 령	43
3.2.1 중국의 양축설화 서사단락	43
3.2.2 태국의 따오 싸른 령	44
3.3 위 작품의 내용 비교	45
3.4 중국 강창문학의 영향	47
4. 양산백전과 세경본풀이의 비교	53
4.1 양산백전과 양산백보권과의 관련	53
4.2 세경 본풀이의 제주도적 향토화	55

5. 결 론	60
〈참고문헌〉	64
〈영문요약〉	66

1. 서 론

1.1 문제의 성격과 선행연구들

고소설은 주인공의 일대기가 중심이 되어 이야기가 전개된다.

서사무가도 역시 신의 내력을 일대기 형식인 노래로 부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된다. 고소설과 서사무가 가운데 공통적인 이야기가 발견되는 것이 여러 편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양산백전과 세경본풀이를 꼽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양산백전과 세경본풀이를 중심으로 설화 강창문학 고소설 그리고 서사무가들의 문학사적인 영향의 수수관계를 고찰하기로 한다.

양산백전에 대한 연구는 김태준님의 조선소설사에서¹⁾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정사에 나오는 축영대설화를 소개하면서 양산백전의 전거가 된다고 하고 설화와 소설의 차이점을 밝혔다. 또한 축영대설화의 중국문학사적 의의를 지적하였다.

서대석님의 「서사무가 연구」에서는²⁾ 동일한 소재가 설화 소설 무가에 있음을 주시하고 함경도 무가 문구는 축영대설화를 저본으로 했고 중국에서 유행하던 축영대설화가 전파되어 양산백전의 모태설화가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설화와 무가에 공통된 줄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상호관계가 밀접하다고 보고 또 소설과 무가의 비교를 통해서 볼때 줄거리만 비슷하고 세부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들어서 어느것이 어느것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정짓기 어렵다고 보았다. 축영대 설화와 같은 내용이 제주도 설화와 서사무가 세경본풀이에 있는 것도 지적하고 이들도 관련이 있으리라고 보았다.

1) 김태준, 조선소설사 清進書館, 1933. (예문, 1989)

2) 서대석, 서사무가 연구, 국문학연구 제8집.

장주근님은³⁾ 중국의 강창문학들과 한국본토의 무가, 제주도 서사무가를 비교하고 중국의 강창이 처음에는 불교포교용으로 사용되었는데 한국에서는 본토의 서사무가들이나 특히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주시했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도 유사한 점이 있음을 세경본풀이 세민황제본풀이 이공본풀이 목련전등을 통해서 밝혔다. 한편 세경본풀이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제주도 민담, 이조 소설, 함경도 무가에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서사무가 고소설 민담들이 중국의 강창인 보권류들을 직수입했으며 그 관계가 세부적으로 밀접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속문학사상의 자승생친적(子承生親的) 역사전통이 면밀했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경향이 짙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양산백전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로는 정규복님의 양산백전고를⁴⁾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중국 양축설화의 전개양상을 밝히고 양산백전이 이들 소재를 빌어서 한국의 독창적인 창작으로 보았다. 그러나 중국의 양산백보권이 양산백전과 비슷한 내용임을 몰랐고 이와에의 구체적인 대비가 없었다.

양산백전을 적강소설의 범주로 본것으로는 성현경님의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과⁵⁾ 안동준님의 「적강형 애정소설의 형성과 변모」⁶⁾ 등을 들 수 있다.

무속신화적 입장에서 세경본풀이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로는 김화경님의 「세경본풀이의 신화학적 고찰」⁷⁾ 박경신님의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가지 특징」⁸⁾ 이수자님의 「제주도무속과 신화연구」⁹⁾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논문들은 신화적 입

3) 장주근, 서사무가의 始源과 民俗文藝史上的 位置, 문화인류학 5집, 1972.

4) 정규복, 梁山伯傳攷, 중국연구 4집, 한국어국어 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1979.

5) 성현경,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학교출판부, 1981.

6) 안동준, 적강형 애정소설의 형성과 변모, 문학연구7, 우리어문학회, 1988.

7) 김화경, 세경본풀이의 신화학적 고찰, 한국학보28.

8) 박경신,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가지 특징,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1986.

9) 이수자, 제주도무속과 신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장에서 세경본풀이에 접근하였다.

이상의 논고들을 통하여 볼 때 양산백전과 세경본풀이에 대한 논고는 비교연구에 구체적 대비가 없었으며 각각의 개별적인 연구가 진척되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1.2 자료소개와 연구방법

본고에서 분석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1 양산백전

1) 楊山伯傳, (京城, 翰南書林, 1920)

2) 양산백전, (世昌書館發行)

자료1)과 자료2)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나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다. 자료1)은 양산백의 출생에만 태몽이 있었는데 자료2)는 추양대의 탄생에도 태몽이 있었다. 자료2)에서는 추양대가 끝까지 남자로 행세하려는 태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양산백이 죽은뒤에 혼령이 되어 나타나는 것도 자료1)에서는 자주 찾아와 추양대와 함께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료2)에서는 꿈속에 등장하는 정도였다.

자료2)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양산백 추양대부부가 천상으로 오른뒤 자식들이 3년상을 정성껏 모셨다는 내용등 유교적 도덕관이 자세히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자료1)를 분석의 주자료로 삼고 자료2)와의 차이점은 ()에 첨가하였다. 자료1)을 선택한 이유는 정규복님의 논문에서 두자료가 같은것으로 인정하고 자료2)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두자료가 서로 다른점이 있었으므로 차이점을 밝히기 위하여 자료1)을 선정하였다.

1.2.2 세경본풀이

번호	제 목	전승지	구연자	채록자	발 표 지	발표년도
1	세경본풀이	제주도	安仕仁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1980
2	세경본풀이	제주도	강일생	진성기	남국의 무속서사시	1980
3	世經本풀이	제주도	高大伸	장주근	한국의 민간신앙下(자료편)	1973
4	세경본풀이	제주도	朴奉春	亦松智城 秋葉隆	朝鮮巫俗의 研究	1937

세경본풀이는 위에 소개한 4개의 자료외에 따로 소개된 자료도 많다.¹⁰⁾ 본고에서는 위의 4자료를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세경본풀이는 내용도 길고, 사건도 많으며 그 진행순서도 뒤바뀌는 경우도 많고 생략되는 경우도 있었다. 앞선 연구에서¹¹⁾ 기본적인 내용과 순서는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이 비교적 원형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본고에서도 자료1)을 중심으로 단락을 분류하고 다른 부분은 ()로 첨가하였다.

자료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료1)에는 내용이 가장 풍부하고 사건도 가장 많으며, 자청비의 조상을 조부, 조모, 부모등을 처음에 모두 밝히고 농신을 모두 밝히면서 본을 풀어 나갔다. 또 자청비를 낳기 위한 원불수륙과정이 자세하며, 혼인식때 말머리고사 지내는 법과 여자 십오세 넘으면 몸에 구실하는 법등 法之法 마련과정이 나온다.

자료2)는 제주도 방언을 그대로 기록하고 주석을 달았으며 집진국대감과 조진

10) 진성기, 남국의무가,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한국구비문학대계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상수, 한국인의 신화, 문음사, 1980.

11) 박경신,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가지특징, 국어국문학 96, 국어국문학회, 1986.

국부인 천상배필 맺는 것이 나오며 자청비를 잉태한 조진국부인이 음식찾아 먹는 것이 자세하게 나타난다. 자료2)는 후반의 사건들이 자료1)과 서로 바뀌어 있으며 내용은 비슷하였다.

자료3)은 자청비를 낳기까지 원불수록 드리는 것이 간단하게 나왔다. 내용은 대체로 간단하며 후반에서도 자청비의 활약이 없었으며 문도령에게 실망하여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자청비가 제석할망이 되고, 자청비 아버지가 天祭 國祭시우제 받아 먹기를 서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료4)는 세경의 조상으로 조부, 조모 부친 모친이 열거되었고, 자청비를 낳기 위해 원불수록 드릴때 동개나무사에 드린다 해 놓고 서개나무사에 수록드려서 동개나무사 중이 시기로 여자를 점지해주는 과정이 나온다. 이로 인하여 하인 정수덕이 몸에 환생을 주어 사내를 잉태시킨다. 그로 인하여 정수남이 태어나는데 정수남이 태어나는 내력이 나오는 유일한 것이기도 하다. 자청비가 문도령과 결합하기 위해 부모앞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생략되었고, 후반의 자청비 활약은 외적이 침입한 것을 막는 것만 나왔으며, 정수남이 목축신으로 우마를 맡아서 말머리 고사를 백종때 지내는 것으로 나온다.

1.2.3 문굿

번호	제 목	전승지	구연자	채록자	발 표 지	발표년도
1	문 굿	함경도	姜春玉	임석재 장주근	관북지방 무가	1965
2	치원대 양산복	함경도	李高粉	김태곤	한국 무가집 (3)	1978

자료의 특징은 자료1)은 1965년 9월에 채록된 자료로서 문굿의 의례와 구연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양산백과 추양대가 태어나기 전에 기도를 드린 장소 지리산까지의 路程이 三千里江山으로 시작하여 8道の 境界를 山과 江을 나열하면서 북쪽에서 부터 차례로 나열하고 있다. 말과 노래가 섞여 나오며 노래끝에는 아헤-에-아하는 식으로 끝내고 있다. 굿의 기능을 알려 주는 특징이 있다.

자료2)는 크게 嘯과 말 嘯으로 三分되어 있다. 앞부분 창에서는 양산복과 치원대를 낳기 전에 어머니들이 빨래하러 갔다가 떠내려온 배를 먹고 잉태하는 사연에서 양산복 치원대 둘이 함께 공부하는데 까지이며, 뒷부분 창은 두사람이 죽은 뒤 길닭음까지 불러진다. 1966년 5월에 채록되었다.

1.2.4 제주도 자청비 이야기

번호	제 목	전승지	구연자	채록자	발 표 지	발표년도
1	자청비	제주도	조정생	진성기	남국의 전설	1959
2	주청비와 문국성문도령	제주도	서계생	김영돈 현용준외	제주설화 집성(1)	1985

자료1)은 1958년에 채록되었으며, 대화하는 듯 서술하였으며, 여주인공 이름도 가령나다 가령비인 자청비라 하였고 두 주인공이 만나는 장면과 자청비가 부모에게 공부하러 가기 위해 허락받는 장면들이 자세히 나온다. 자청비가 문도령의 무덤을 가르는데, 통곡을 하여서 무덤을 가르고 그속으로 들어가자 신랑이 치마자락을 잡아 당긴다. 이에 자청비가 파리 모기나 되라고 말한다.

자료2)는 1981년에 채록된 것으로 앞부분에 줄거리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고

뒷부분에 구연한 것을 기록하였다. 자청비가 문도령 무덤을 지나가는 것이 시집 간 뒤에 문도령 생각이 나서 명주치마를 바레 놓고 신랑에게 친정에 가자고 하여 함께 가다가 무덤을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은 간략하다.

1.2.5 연구방법

중국의 설화나 강창문학에 있는 소재들이 한국의 서사무가나 고소설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작품으로는 양산백전과 세경본풀이 이외에도 몇작품을 더 들 수 있다.

중국의 돈황에게 발견된 당태종입명기는 제주도 서사무가 세민황제본풀이와 같은 내용이며, 같은 내용의 고소설로는 당태종전을 들 수 있다.

또 석보상절속에 있는 안락국태자정은 제주도 서사무가 이공본풀이와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무가로는 평안도에서도 신선세턴님청배로 전하여 지고 있다. 이와 동계열의 고소설은 안락국전을 들 수 있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서사무가나 고소설은 그 형성에 있어서 중국과의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공통소재를 갖고 있는 고소설 양산백전과 제주도 서사무가 세경본풀이의 비교를 통하여 같은 소재가 고소설과 서사무가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살펴 보기로 한다.

고소설이라는 양식과 서사무가라는 양식에 같은 소재가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와같은 내용이 함경도 서사무가인 문굿에도 있으며 제주도에서는 세경본풀이외에 민담에서 자청비 이야기로도 전승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축영대설화가 있으며 태국의 따오 싸른 령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음을 주시하고 이들의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살펴 보기로 한다.

이상에 열거한 것들은 서로 다른 갈래임에도 같은 소재가 들어 있다. 이들의

비교를 통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 각작품이 갖고 있는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한다. 아울러서 이들 중국의 강창문학 설화 무가 고소설등 각 갈래에 공통되는 소재들의 영향의 수수관계를 살펴서 한국 서사문학의 문학사적인 전개과정의 실마리를 또한 탐색해두고자 한다.

2. 양산백전과 세경본풀이의 비교

2) 양산백전의 서사단락

양산백전은 翰南書林本과 世昌書館本 두 종류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한남서림본을 주자료로 서사단락을 분류하고 서로 다른 차이점은 ()에 첨가하기로 한다. 두자료는 세부적으로 몇가지 차이가 있었으나 내용은 대체로 비슷하였다.

한남서림본을 택한 것은 앞선 연구에서¹²⁾ 두자료를 같은 것으로 보고 세창서관본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둘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양산백전은 천상선관이었던 산백이 옥황께 득죄하여 이세상에 내려와 살다 가는 양산백의 일대기이다.

양산백전의 서사단락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명성하년간에 남양땅에서 대대로 명문거족이던 양현은 나이가 오십이 되도록 슬하에 자녀가 없어 걱정하다가 천상선관이 득죄하여 하강한다는 내용의 꿈을 부부가 같이 꾸고 아들을 낳아 산백이라 이름하였다.

② 평강땅에 추란 사람이 일너를 두었는데 이름은 상덕이며, 부부가 매우 사

12) 정규복, 양산백전고, 중국연구4집, 한국외국어 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랑하여 늘 남북을 입혀 두고 글을 가르쳤다.

(대대로 명문거족이었으나 닳도록 자식이 없어 슬퍼하다가, 부인이 선녀에게서 받은 꽃가지가 명주로 변하여 품에 안기는 꿈을 꾸고 일너를 낳았다.)

③ 산백이 십삼세가 되었을때 공이 불러 운향사에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보냈다. 상티는 부모에게 고하기를 운향사는 조용하고 이름있는 절이니 한번 구경하고 거기에서 공부하고 오겠다고 말하니 부모가 허락을 한다.

(양대는 남자 소임을 숭상하여 남자로 처세하고, 이현부모할 뜻을 품고 부모에게 운향사에 가서 공부할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다.)

④ 산백과 상티가 寺門에서 서로 만나 인사하고 한방에 거처하면서 공부하다가 서로의 정을 잊지 않기 위하여 불전에서 맹세를 하고 서로의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

(의복을 바꾸어 입는 내용은 없다).

⑤ 유월 염침에 산백이 상티에게 폭포에 가서 목욕하자고 하니 상티가 마지 못하여 따라 가서는 위쪽에서 따로 하는 것을 보고 산백이 상티를 여자로 의심하기 시작한다.

(양생이 추생의 기골을 보고 여화위남으로 의심하기 시작하여, 추생에게 향하는 뜻이 간절하여지므로 여자인지 확인하려고 소피내기를 해보았으나 추생에게 진다).

⑥ 서당에서 산백과 상티가 글을 읽을때 까치가 날아와, 산백이 불길한 징조라 하니 상티가 쫓아버리라 하고, 상티가 까치를 쫓을때 그 모습을 본 양생은 더욱 의심하기 시작한다.

(까치를 쫓을때 남자 거동이 아님을 보고 더욱 반신반의한다.)

⑦ 산백이 상티가 잠이 든 사이에 가슴을 만져 보고 여자인 줄 알게 된다.

(추소저가 잠일 들었을때 가슴을 만져 보니 설부 옥골 여자가 분명하였다.)

⑧ 산백이 상티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하나 상티는 부질없는말 하지 말라고 한다. 상티와 언약했던 일을 떠올리고 언약이 변함없는지 살피려고 산백이 언약함을 내세우자 상티는 저버릴 뜻이 없는데 꺾박하니 나를 업신 여기는 처사라고 오히려 나무란다.

(추소저가 평생남자로 처세하여 이현부모하고 부모의 만년을 즐기거져 하는 뜻을 밝히고, 산백에게 공부하여 성업을 이루라고 당부한다.

⑨ 상티가 더이상 속이지 못함을 알고 집에 돌아가 부모에게 말씀 드리고 인연을 맺으려고 집으로 돌아올때 별시를 남겨 두고 온다.

⑩ 상티가 돌아간뒤 전전궁궁하던 산백이 꿈속에서 상티를 보고 그를 찾아가나 비복이 이제는 만날수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에 어찌할 줄을 모른다.

⑪ 성주땅에 심현의 아들 의량은 나이 십오세에 입신하여 이름이 조야에 가득하였는데 상티의 용모와 재질을 듣고 청혼하여 오므로 부모가 허혼하고 이 사실을 상티에게 알리니, 상티는 산백과 인연맺어 줄것을 호소하였으나 이루지 못한다.

⑫ 상티를 만나러 갔던 산백은 혼약한 이 소식을 듣고 돌아와 추소저를 못잊어 식음을 전폐하고 병이 드니, 양상서가 이를 알고 추상서 집에 찾아가나, 이미 추상티는 혼인을 하고 삼일 잔치중이었다.

⑬ 산백이 이소식을 듣고 병세가 더욱 침중해져 상티에게 남기는 서신과 상티 다니는 길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⑭ 심생이 신방에 들어 가니 추소저는 침식에 구부러져 움직이지 않다가 공중에서 바빠 들어 가라는 소리에 간신히 몸이 움직이고, 심생이 추소저를 범하려 하니 공중에서 누런관을 쓰고 붉은옷을 입고 백옥화를 쥔것이 내려와 추소저를

옹위하므로 범하지를 못한다.

⑮ 상티 꿈에 산백이 학을 타고 내려와 서신과 유언을 남긴것과 지하의 원혼이 되었음을 알리고, 이후로는 밤마다 찾아와 즐기고 간다.

(양생이 서찰과 유언을 전하고 슬피 울어 놀라깨니 꿈이었다.)

⑯ 상티가 부모에게 혼인하였으니 구가로 가겠다고 말하고 만수 무강을 빌때, 산백의 혼령은 그의 부모에게 현몽하여 서찰을 상티에게 전하라 하고 상티의 신행길을 알려준다.

⑰ 구가로 가던 상티가 양생의 묘에 이르러서 심생에게 신령이나 위로하고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니 심생은 마지 못하여 허락을 한다.

⑱ 상티가 무덤에 제물을 내리고 제문을 읽으니 그 소리에 사면에 안개가 자욱해지면서 무지개빛이 비치고 묘가 갈라지므로 상티가 무덤속으로 뛰어들어 일행이 놀라서 치마를 잡아 당기니 치마자락은 나비가 되고 무덤은 전과 같이 합하여졌다.

⑲ 심생이 이것을 보고 화를 이기지 못하여 후일 노복을 데리고 무덤을 파서 각각 묻으니 반죽과 년출이 나와 서로 얹키므로 더욱 통분하여 년출을 베어 불을 지르고 무덤하나를 고개 너머로 옮겼으나 무덤에서 다시 뿜끓음이 나와 엉키므로 어쩔수 없이 돌아 간다.

⑳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잘못들은 심생이 한 동자의 안내로 노인을 만나서 산백과 상티의 일은 이미 天定이라는 사실을 듣고 뉘우치고 돌아간다.

㉑ 산백과 상티의 혼령이 방장산에서 만나 태을성인에게 다시 인간계에 내려가 미진한 정을 잊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㉒ 태을성인의 허락을 받고 두혼령이 천상선관으로 있던 운남산을 지나서 인간계로 내려와 무덤에서 환생하여 무지개다리를 타고 건너와 서로 만난다.

㉓ 두사람이 평강으로 가서 인간계에 내려오게 된 사연을 상디부모에게 말하고 성례를 올린뒤 남양땅에 가서도 산백부모에게 전후사정을 말씀드린다.

㉔ 대명성하28년에 북방의 오랑캐가 침범하므로 조정에서는 과거를 배설하여 인재를 등용하고 북방을 평정하려 하니 산백이 과거에 나아가 문·무에 장원하고 한림학사겸 표기장군을 제수받는다.

㉕ 서달이 북평에 웅거하여 장안을 침입하려 하니 나라에서는 왕균과 위홍을 보낸다.

㉖ 왕균은 적군에게 사로 잡히고, 위홍은 도망하여 조정에다 패군 사실을 알리니, 나라에서는 제신들이 모여 양산백을 대장으로 삼아 도적을 토멸할 것을 의논한다.

㉗ 산백이 왕명을 받고 군사를 지휘하여 우북평으로 나아간다.

㉘ 산백이 서달에게 항복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듣지 않고 야출을 보내므로 위홍이 대적하여 야출을 사로 잡으니, 서달이 직접 나오므로 이에 곽준이 대결을 벌이다 곽준이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산백이 활을 쏘아 서달의 말을 쓰러뜨린다.

㉙ 서달이 돌아가 전세를 가다듬어 전장에 나와서 산백에게 싸울것을 요구하나 산백은 여러날 응치 않다가 사방에 북병을 놓고 서달을 친다. 서달이 크게 패하고 돌아가 분을 참지 못하고 자객을 불러 산백을 해치려하다 실패하고 오히려 사로 잡히니 적진의 장졸이 모두 항복한다.

㉚ 산백이 회군하여 북평후를 제수받고 고향으로 돌아와 세월을 보낼때 이자일녀를 두고 팔십을 향수한다.

㉛ 팔십이 되는해에 선관선녀가 내려와, 연화를 타고 부부함께 천상에 오르니 사방에 구름이 자욱하고 향풍이 진동하였다. 이말이 기이하기로 대강 기록한다.

(산백이 서울로 가족을 데리고 상경하고 평강의 가족도 올라오게 하여 양대와 함께 팔십의 수를 누리고 살다가 양생이 천상에 오른뒤 자녀들이 3년상을 극진히 마치니 이뒤로 계계송송 명환이 떠나지 아니 하였다. 괴이하고 희귀하고 공정절후한 일을 자세히 기록한다.)

양산백전의 서사단락은 사건을 중심으로 나누어 보았다.

양산백전의 전반부는 두주인공이 만나서 공부하다 남장했던 여주인공이 여자임이 밝혀지고 두사람이 결합을 이루려 하나 부모의 반대로 이루지 못하고 죽는 男女離合譚으로 되어 있다. 후반부는 양산백이 과거를 통한 출세과정으로 되어 있다.

대개의 古小說과 같이 양산백전도 주인공의 일대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천상계의 힘에 의해서 주인공은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고 있다. 또한 태몽이나 환생, 죽음등이 천상에서 이미 정해진 것으로서 양산백과 추양대의 삶이 두사람의 선택에 의한것도 있지만 하늘에서 정한 필연으로 인하여 결합되어지고 있다.

2.2. 세경본풀이의 서사단락

세경본풀이는 큰굿의 제차중 세경신의 본을 푸는 세경본풀이에서 불려지는 서사무가이다. 세경신은 農神으로서 농신이 된 자청비의 내력을 담고 있으며, 아울러 목축신이 된 정수남의 내력도 실고 있다.

상세경은 문도령 중세경은 자청비 하세경은 정수남인 데, 중세경인 자청비는 농신이 되고 하세경인 정수남은 목축신이 된다. 상세경 중세경 하세경으로 분류되어 나타나는 것은 상세경 문도령이 하늘 옥황의 아들로 하늘 또는 天神을 상징하는 것으로 三者 모두 농사에 빠져서는 안될 요소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세경본풀이는 천신인 문도령과 지신인 자청비의 이야기가 주로 나오며 그중에서도 자청비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현용준의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에 실린 세경본풀이는 그 내용면에서나 사건면에서 가장 풍부하고 다양하며 원형에 가깝다는 앞선 연구가 있었¹³⁾으므로 본고에서도 이 자료를 기본으로 서사 단락을 분류하였다. 安 仕仁 구연이다.

전성기의 「남국의 무속 서사시」에 실린 것도 내용면에서 풍부함을 지니고 있으며 후반에 사건이 앞자료와 약간 자리바꿈을 한 정도였다. 제주도 방언을 그대로 기록하였으며 리듬감이 있다. 편의상 자료2)라 칭하며, 강일생구연이다.

장주근의 「韓國의 民間信仰」에 실린것은 高大伸구연으로 내용은 풍부하나 후반의 사건은 적은 편이었다. 자청비 부모내력은 간단하였고, 문도령과 함께 공부하고 돌아와 자청비 집에서 머물때 문도령이 자청비가 상만 차려주고 방에 들어오지 않아 찾아 나갔다가 침세질소리에 방으로 들어가려 하니 자청비가 손가락을 창구멍으로 넣어 보라고 하여 자청비가 손가락을 바늘로 찌르니 화가 나서 옥황으로 돌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은 후반에 자청비를 만나러 온 문도령에게도 다시 사용해서 두번 반복이 되고 있다. 후반에서 자청비의 활약이 많지 않으며 자청비가 지상으로 내려오는것이 부모에게 금시상으로 내려 갈테니 오곡씨나 달라는 것으로 오곡씨를 받아 가지고 와서 농신이 된다. 편의상 자료 3)이라 칭한다.

亦松智城 秋葉隆의 「朝鮮巫俗의 研究」 자료는 앞부분은 내용이 비교적 풍부하나 후반은 간단하다. 자청비가 문도령과 하늘에서 결합을 이룬것이 부모에게 애걸하여 된것으로 나타나고, 자청비가 이세상에 내려오는 것도 문도령에게 실망

13) 박경신,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가지특징, 국어국문학96, p. 294.

하여 정수남을 데리고 내려와 세경이 된다. 편의상 자료4)라고 하며, 구연자는 朴奉春으로 되어있다.

① 짐진국 대감과 조진국 부인이 부귀를 누리며 살때, 오십이 가까워도 자식이 없었다. 하루는 대감이 세거리에서 바둑 장기 놀이를 할때 한 절인이 자식을 놓고 웃는 것을 보고 돌아와 자식 없음을 탄식한다.

(자료2; 서천꽃밭에 꽃구경 가보니 새들은 모두 새끼가 있고 그 어미가 벌레를 물어다 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초막에서 거지가 아이를 안고 노는 것을 보고 아이 없음을 탄식한다.)

(자료3; 노변에 나가보니 까막새 만물 푸짐새가 아배 어매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돌아와 자식없음을 자탄한다.)

(자료4; 賓家에서 웃음소리가 나서 알아 보니 아이를 놓고 노는 형상이라한다.)

② 동개남 상서절 대사가 권제삼문을 받으러 와서 짐진국 대감이 시주를 하고 四柱를 봐 달라고 하니 원불수륙을 하면 자식이 있다하여 백일 수륙을 드리고, 백일되는 날 재어보니 한근이 부족한 아흔아홉근이라 여식을 점지 받는다.

(자료2; 조진국이 정성껏 준비한 명주를 짐진국이 많다고 반근을 덜어두고 나머지 가지고 수륙을 가다가 서개남 무광절 중이 이절이 영험하다는 말에 거기다가 수륙을 드린다. 조진국은 꿈에 흰송낙을 쓴것을 보고, 짐진국은 청감주에 호박저 먹는 꿈을 꾸고 여자인줄 알게 된다.)

(자료3; 수륙 드릴때 金白米를 저울질하니 아흔 아홉근이라 예궁예애기씨를 점지받고, 대감과 부인이 예궁예애기씨를 안고 오는 꿈을 꾸고 자청비를 낳는다.)

(자료4; 동개남무사에 드릴 공양을 서개남무사에 시주하여 대사의 시기로 하

인 정수덕이 몸에는 환생을 주어 아들을 짐지하고 점진국에게는 딸을 점지하여 준다.)

③ 자청비의 나이 십오세때 베을 짜다가 하인 정수덕이의 손이 하얀것을 보고 까닭을 물으니 빨래를 해서 그렇다 하여 자청비가 주천강 연지로 연서답을 갔다. 이때 하늘 옥황 문국성의 아들 문왕상 문도령이 아래녀 거무선생에게 글공부하러 가다가 자청비를 보고 반하여 물을 청한다. 자청비는 물에다 버들잎을 띄워 준다. 문도령이 이것을 탕하니 자청비는 물을 급히 먹다 체할까봐 그랬다고 하고, 어디 가는 길인지 묻고, 자기 동생과 함께 공부하러 가라 하고는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말하고 男服을 입고 문도령과 함께 길을 떠난다.

(자료2; 오라버니와 함께 가라고 한다.)

(자료3; 쌍생(雙生)오랍동생과 함께 가라고 한다.)

(자료4; 동개남 주정당으로 공부하러 갈때 자기 오라버니와 함께 가라고 한다.)

④ 형제를 삼아서 공부를 할때 한이불에서 자고, 한술밥을 먹는데 문도령 눈에 자청비가 여자 몸매가 나타난다. 자청비가 은대야에 은저 낫저를 걸쳐 놓고 떨어지지 않으면 공부가 잘된다고 하니 문도령도 그렇게 하나 너무 신경을 쓰느라 조심이 되어 잠을 못자서 문도령은 공부가 떨어진다. 문도령이 자청비에게 오쭈누기 내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문도령이 진다. 문도령은 집에서 서수왕 딸아기에게 장가가라는 편지가 와서 돌아가겠다고 하니 자청비도 돌아 가겠다고 한다.

(자료2; 물허벅에 저분을 올려 놓고 공부를 하고 짐도령이 여자 몸매로 변하는 것을 알아본 선생이 의심을 하자 짐도령이 선생에게 가슴을 만져 보게 하나 알수가 없었다. 선생이 달리가 시험, 씨름, 오쭈누기 시험을 시켰으나 알수가 없었다. 문도령에게 편지가 온것을 알고 자청비도 편지를 써서 선생에게 보여 주

고 집으로 돌아갈 허락을 받는다.

(자료3; 오쭈누기등의 내기는 없다.)

(자료4; 은대야에 금봉채를 걸쳐 두고 3년을 공부하고 나서 자청비가 먼저 귀가하겠다고 하니 문도령도 역시 돌아가겠다고 한다.)

⑤ 자청비가 돌아가다가 위아래 물통을 보고 목욕이나 하고 가자고 하여 자청비는 위쪽에서 문도령은 아래쪽에서 하는데, 자청비는 버들잎에 눈치도 모르는 문도령아! 하는 책망의 내용을 적어 아래로 띄우고 먼저 돌아가니, 문도령이 이를 보고 바삐 돌아가서 자청비를 만나고, 자청비 집에서 하룻밤을 지낼때 자청비는 윗방에서 베를 짜고, 자청비와 헤어질때 문도령은 박씨하나와 열레빗 반쪽을 나누어 징표를 남긴다.

(자료2; 자청비가 문도령에게 女服을 입혀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날밤 천상베짚을 맺으니, 문도령이 돌아갈때 복숭아씨 두알을 주고, 자청비는 정자나무씨를 준다.)

(자료3; 자청비가 상을 차려 주고 상다락에 올라가 바느질을 하므로 문도령이 올라가서 자청비를 부르니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창틈으로 손가락을 내밀라고 하므로 문도령이 창틈으로 손을 넣으니 자청비가 바늘로 문도령의 손가락을 찌른다. 문도령이 화가 나서 옥황으로 올라 갈때에 박씨 한알을 남기고 간다.)

(자료4; 자청비는 문도령을 안사랑으로 인도하여 삼개월동안 함께 춘몽을 꾸다. 문도령이 돌아 갈때 자청비에게 梨種을 주면서 간다.)

⑥ 자청비가 문도령과 헤어진뒤 하인 정수남에게 일을 시켰더니 정수남이는 소아흙 말아흙을 끌고 나무하러 갔다가 소와말을 모두 죽여 잡아먹고 가죽만 남겨 돌아오다가 소(沼)에서 도끼와 가죽, 옷까지 모두 잃고 와서는 자청비에게 문도령이 놀던 것을 구경하고 오다가 그리웠다고 거짓말을 한다.

문도령 소리에 자청비는 반가운 나머지 정수남을 데리고 문도령을 만나러 갔으나 정수남의 거짓임을 안다. 정수남이 희룡을 하므로, 자청비는 겁탈하려는 정수남을 죽이고, 집에 와서 부모에게 정수남 죽인 사실을 말한다.

부모가 종을 죽였다고 자청비에게 정수남 대신 종의 일을 시키는데 일이 너무 고되어서 자청비는 집을 나온다.

(자료2; 정수남이 서천꽃밭으로 나무하러 간다.)

(자료3; 자청비가 정수남을 죽이니 정수남의 혼이 부엉새가 되어, 자청비는 부엉새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정수남 죽인 사실을 고한다. 부모는 종을 죽였다고 자청비를 집에서 쫓아낸다.)

(자료4; 정수남을 죽이니 좌로는 뼈꼭새 우로는 부엉새가 날아 들었다.)

⑦ 자청비가 집에서 쫓겨 나와 길을 가다 보니 부엉새를 가지고 다투는 아이들을 보고 한냥씩 나누어 주고 부엉새를 받아다가 황새곤간의 서천꽃밭에 던져 둔다. 황새곤간에게 부엉이를 맞혔는데 화살이나 찾아가게 해달라고 하니, 황새곤간은 서천꽃밭의 부엉새를 잡아주면 사위로 삼겠다 하므로 하루를 머문다.

밤에 서천꽃밭에 나가 옷을 벗고 “정수남의 혼이 있거든 부엉새로 환생하라” 하니 부엉새가 날아오므로 이를 잡아 주고 황새곤간의 말갯딸아기와 혼인하여 서천꽃밭에서 살오르는꽃 뼈오르는꽃 피오르는꽃 등을 얻어와 정수남을 살린다.

(자료2; 위의 내용이 후반에 등장한다.)

(자료3; 짐정승집에 사람 살리는 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가다가 부엉이를 가지고 싸우는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그대신 부엉이를 가지고 와서 짐정승집 서천꽃밭에 던져 두고, 짐정승집 부엉이를 잡아 주는 것처럼 하여 말갯딸아기와 혼인하게 된다. 자청비는 살오르는꽃 뼈오르는꽃 힘오르는꽃을 구해다가 정수남을 살리나 부모는 여자 십오세되면 출가외인이라고 자청비를 내쫓는다.)

(자료4; 자청비가 사라대왕의 후원에 부엉이를 잡아주니 사라대왕은 그의 女息과 혼인하라고 권한다. 자청비는 공부나 마친후에 하겠다하고 화초구경하면서 인간 환생화를 얻어다가 정수남을 살린다.)

⑧ 자청비가 부모에게 정수남을 살려 왔다고 하니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하는 집안 망칠년이라고 오히려 자청비를 내쫓는다.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가 울고 있을때 주모땅 주모할망이 자청비를 수양딸로 삼는다. 주모할망대신 비단을 짜는데 문도령 혼수비단도 대신 짜서 하늘에 올려 보내니 문도령은 비단을 누가 짰는지 주모할망에게 묻고는 자청비를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자료2; 자청비는 청태국 마귀할망의 수양딸이 된다.)

(자료3; 자청비는 주모할망 수양딸이 되어 침새질을 하며 살때, 문도령이 내려 온다.)

(자료4;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가 길을 가다 어느 노인의 비단짜는 것을 구경한다. 노인 대신 자청비가 비단을 짜주니 노인이 자청비를 그의 자식으로 삼았다. 그 노인은 옥황제인으로 문관성 문도령 비단을 짜코내고 있는데 자청비가 대신짜서 보내니 노인보다 더 잘짖다고 하면서 누가 짖는지 문도령이 묻고, 자청비와 만날 기일을 정한다.

⑨ 문도령이 옥황에서 내려와 자청비 만나기를 청하니, 자청비는 기다리다 지쳐 바느질을 하다가 문도령에게 창틈으로 손가락을 내보이라고 하고는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 이에 화가 난 문도령이 옥황으로 올라가 버린다. 이를 안 주모할망은 행동이 단정치 못하다고 자청비를 내쫓는다.

자청비는 중이 되어 시주하러 다니다가 울고 있는 궁녀를 만난다. 자청비가 궁녀에게 우는 이유를 물어 보니 문도령과 자청비 몸목욕하던 물을 못찾아 그리한 다하여 자청비가 그물을 찾아 주고 하늘로 함께 올라 간다.

(자료2; 위의 내용이 없다.)

(자료3; 문도령이 내려와 자원사위를 청한다. 자청비는 정월에 심은 박줄을 타고 천상에 올라가서 궁녀를 도와 주고 문도령의 집을 알아 둔다.)

(자료4; 중이 되어 문도령 상면할 기도를 드리러 다니다가 터진둥이로 못물을 퍼내지 못해 울고 있는 궁녀를 도와주고 하늘에 오른다.)

⑩ 자청비는 문도령 사랑앞 나무에서 노래하다가 문도령에게 발견되어 방으로 들어가 문도령과 만단정회를 나눈다. 사랑을 나눌때 문도령의 하인 느진덕정하님이 이를 알고 부모에게 고하니 문도령 부모는 이들의 사랑을 반대하고 무서운 과제를 내린다. 자청비는 솟선섬에 불을 펴놓고 그위에 선칼을 타나가다가 발뚱 굴치를 베어 치마가 피에젓어 있는것을 보고 부모가 그까닭을 물으니 몸구실하느라 그렇다고 재치있게 넘기고 문국성의 며느리가 된다. 문도령과 혼약한 서수왕 딸아기는 한이 사무쳐 죽는다.

(자료2; 문선왕 부인이 아들의 사랑을 알고 대노하여 문선왕에게 알리니 문선왕이 버선과 패자를 본 없이 만들어 오라고 한다. 자청비가 꼭 맞게 만들고 또 칼선다리 위를 지나가게 하니 자청비가 잘해내므로 이들의 혼인을 허락한다.)

(자료3; 자청비가 부모를 속이고 살 수 없음을 알고 부모의 뜻을 알아 오라고 문도령에게 시키니 문도령 아버지는 짐낭도폭을 몸에 맞게 지어 오라 하고, 어머니는 솟선섬 불살라 놓고 그위에 칼선다리를 타나가야 한다고 하여 자청비는 이것 모두를 해결하고 며느리가 된다. 서수왕 딸아기에게는 문도령이 병이 들었다 하여 두니 서수왕 딸아기가 방안에 들어가 석달 열흘을 안 나와서 나중에 들어가 보니 새가 되었다.)

(자료4; 자청비가 문도령과 동침하는 중에 발각되어 문도령이 부모에게 애걸하여 부부가 되고, 문도령과 전에 약혼한 곳의 처녀는 자살을 하였다.)

⑪ 자청비가 문도령과 백년해로 할때 옥황에서 이를 시기하여 문도령을 죽여 두고 자청비를 푸대삼하러 한다. 이것을 안 자청비가 문도령을 서천꽃밭 서수왕 딸에게 가서 선보름살고 후보름은 나에게 와서 살으라고 문도령을 보내니, 문도령이 가서는 오지 않으므로 자청비가 편지를 써서 새의 날개에 넣어 보내니, 문도령이 이를 보고 급히 돌아와 바쁜행착이 되었다.

(자료2; 자청비는 문국성과 살림을 차렸는데 일년도 못되어 세번난이 일어나 자청비가 도둑을 잡아주고 물한쪽과 땅한쪽을 얻는다.)

(자료3; 자청비가 김정승딸과 혼인하여 팔자 그르친 생각을 하고 문도령을 보내어 선보름은 나와 지내고 후보름은 김정승 딸과 지내라고 하였더니 문도령이 김정승딸에게 가서 오지 않아 자청비가 거짓편지를 전하여 문도령을 오게 한다.)

(자료4; 문도령이 약혼했던 처녀가 자살한 것을 알고 부모가 자청비를 핍박할 때 대국천자에 외적이 들어와 자청비가 문도령 대신 출전하고, 문도령은 사라도령딸에게 보낸다. 자청비가 외적을 쳐서 승리하고 돌아와, 문도령에게 돌아오라고 편지를 하니 사라도령딸이 이번에 가면 안돌아온다고 문도령 돌아갈때 말안장을 꺼꾸로 하여 태워 보낸다.)

⑫ 궁에서 잔치를 베풀고 문도령을 초청하니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술을 받아 먹지 말고 턱밑으로 버리라고 하여 문도령은 죽음을 면하고 궁밖으로 나오다가 궁문에서 웨눈박이 할망이 주는 술을 받아 먹고는 죽는다. 문도령이 죽은 줄 알고 군졸들이 자청비를 잡으러 오나 쇠로 만든 수재비와 무쇠방석을 내놓으니, 군졸들이 모두 도망가므로 자청비는 서천꽃밭에 가서 도환생꽃을 따다가 문도령을 살려낸다.

(자료2; 자청비가 집으로 돌아와 살림을 살때 부랑쟁이가 문도령을 죽이고 자청비를 차례배기 하려고 낙성잔치에 초대하니, 자청비가 문도령에게 술받아 먹

지 말라고 주의를 주어 문도령이 술을 먹지 않다가 문밖에 나와서 병신이 주는 술을 먹고 죽는다. 문도령이 죽자 일천선비가 자청비를 헤치려 한다. 자청비는 꽤로 일천선비를 물리치고 서천꽃밭에 가서 부엉새를 잡아주고 꽃감관 세째딸과 혼인하여 살오르는꽃 빼오르는꽃을 구해다가 문도령을 살린다.

⑬ 고을에 변이 나서 이를 막는자에게는 땅한쪽 물한쪽을 준다는 방이 붙어 자청비가 서천꽃밭에서 멸망꽃을 꺾어다가 세변난을 막고, 천제께 물과 땅을 받고, 오곡과 열두시만곡을 달라고 해서 이를 받아 들고 문도령과 함께 칠월 십사일 인 간계로 내려 온다.

(자료2 ; 자청비가 문도령에게 서천꽃밭 말갯딸아기에게 삼년 살면 나에게는 세달살고, 일년 살면, 나에게는 한달 살라고 보냈더니 문도령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편지를 보낸다. 문도령이 급히 오는 것을 보고 자청비가 문을 잠그고 옥황께 하소연하니 오히려 옥황은 문도령 편을 들고, 문도령에게는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 정수남에게는 하세경을 맡긴다.)

(자료3 ; 자청비가 금시상에 내려 갈테니 오곡씨나 달라고 한다.)

(자료4 ; 문도령이 등을 지고 오는것을 보고 자청비는 문도령이 나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런줄 알고 낭군을 이별하고 땅반쪽 물반쪽을 얻고, 옥황은 자청비에게 오곡을 주면서 인간에 내려가 세경이나 맡아 살라고 한다.)

⑭ 자청비가 인간에 내려오니 정수남이 그때까지 살아서 부모가 죽은 것을 알려 준다. 정수남이 자청비에게 점심요기나 시켜 달라고 하여 자청비는 아홉형제 농사짓는 곳에 가서 얻어 먹으라고 하였더니 아홉형제가 정수남을 푸대접하므로 자청비가 아홉형제에게는 흉년을 주고, 늙은이가 걸쟁이로 농사짓는데 가서 얻어 먹으라 하니 정수남에게 보리밥을 내놓고 같이 먹자 하여 늙은이에게는 걸쟁이로 농사를 지어도 풍년을 준다. 오곡씨를 마련할때 모밀씨가 빠져 옥황에게 다

시 타오니 시기가 늦으므로 모밀은 이후로도 늦게 심는 법이 되었다. 상세경 문도령, 중세경 자청비, 하세경 정수남은 칠월 마불림제로 얻어 먹기 마련하였다.

(자료2; 자청비가 옥황께 오곡씨를 받아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 모밀과 유채씨를 잊고 와서 다시 타오니 늦게 되어, 모밀과 유채는 이후로 늦게 심게 되었다. 어머니나라 조진국나라에 가서 정수남을 살려놓으니 어머니는 자청비에게 정수남을 다시 데리고 나가라고 하여 정수남을 데리고 나와 세경땅에 오곡 농사를 벌려 놓는다.)

(자료3; 정수남은 태우리, 자청비는 제석 할망이 된다.)

(자료4; 자청비는 정수남을 데리고 오곡을 심게 하고 우마를 보게 하고, 모밀씨가 없어 다시 얻어다 심으니 늦게 되었다. 자청비는 세경을 맡고 정수남이는 우마를 맡아서 일년 백종이면 말머리 고사를 지낸다.)

이상의 자청비 내력을 담은 세경본풀이는 내용도 다양하며 흥미있고 긴 장편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세경본풀이는 농신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자청비의 활약이 주를 이루며 때로는 조용한 女人으로 때로는 커다란 힘을 지닌 초월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자청비는 女性이면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진취적인 女神이기도 하다.

2.3 양산백전과 세경본풀이의 서사단락 비교.

2.3.1 두 작품의 공통점

양산백전과 세경본풀이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인공의 탄생

② 두 주인공이 만나서 동문수학하는 사연

③ 두 주인공의 이별

④ 두 주인공의 재결합

첫째 주인공의 탄생은 두작품 모두 고귀한 혈통을 지닌 탄생이다. 양산백전의 양산백은 대대로 명문거족이었고 그의 부친 또한 상서벼슬을 한 고위직이었으며 추양대도 이점에서 같다. 두 주인공의 가문이 뛰어난데 비하여 늦도록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다가 태몽을 꾸거나 백일기도를 드린뒤에 주인공이 탄생하게 된다.

세경본풀이에서는 자청비 부모가 재산도 많고 부러울 것이 없었으나 다만 늦도록 자식이 없었다는 점과 자식을 얻기 위하여 절에다 원불수륙을 드리는등 온갖 정성을 드린다. 또한 잉태하기전에 기이한 태몽을 꾸고, 자청비를 낳게 된다.

둘째 두 주인공이 만나서 동문수학하는 사연은 양산백전에서는 두주인공이 각각 자라서 나이가 차고, 공부하기 위하여 집을 떠난다. 그리고 절에서 만나게 된다. 세경본풀이에서는 남주인공이 길을 떠나다가 물가에서 빨래하는 또는 물을 길고 있는 자청비를 만난다.

두주인공이 만나 함께 공부할때 두작품 모두에서 여주인공은 남장을 하여 남자처럼 행세를 하고 잠도 함께 잔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장한 여주인공은 여자로 의심을 받기도 하지만 그럴때마다 위기를 모면한다. 여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으로는 오줌누기등 남자들의 행위등으로 확인하려 하지만 여주인공은 그럴때마다 재치있게 넘긴다.

세째 두 주인공의 이별은 남장했던 여주인공이 여자임이 밝혀지거나 남자 주인공이 장가들러 가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갈때 남장했던 여주인공이 여자임이 밝혀진다. 이에 두사람이 결함을 이루려 하나 실패하여 이별을 겪게 된다.

양산백전에서는 산백이 양대가 여자인줄 확인하고 청혼하여 결함을 요구하지

만 양대는 부모의 허락없이 할 수 없다고 하여 부모에게 의논하나, 부모는 이미 다른곳으로 허혼한 뒤이므로 반대한다.

양산백전에서는 유교적인 윤리관과 두사람이 결합하려는 욕망사이에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산백과 양대의 결합의지보다 부모의 의견이 더욱 존중됨으로서 결국 두사람은 결합을 이루지 못하고 헤어진다. 그러나 세경본풀이에서는 남주인공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주인공의 정체를 알고 여주인공을 쫓아가서 하룻동안의 인연을 맺는다. 그렇지만 남주인공은 옥황으로 돌아가야 하는 까닭에 둘사이의 이별은 피할수 없게 된다.

네째 두 주인공의 재결합은 헤어졌던 두 주인공이 죽음을 또는 죽음과 같은 어려운 고비를 극복함으로써 재결합을 성취한다. 양산백전에서는 두 주인공이 죽고 옥황께 환생을 부탁하여 인간계로 환생되어 내려 오고, 세경본풀이의 여주인공은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그 극복의 결과로 결합을 이룩한다. 이러한 재결합 과정은 여주인공이 죽음 또는 죽음이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둘사이의 결합을 성취하였다는 점에서 고귀하며 두 주인공의 의지에 따른 결합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공통점에서 볼때 두 작품은 남녀 주인공의 만남과 헤어짐이 거듭되는 男女離合談으로 이루어져 있다.

2.3.2 두 작품의 차이점

다음의 두작품 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양산백전에서는 양산백의 일대기가 적강구조속에서 그려지고 있으며 후반에는 군담을 통한 산백의 출세담으로 되어 있다.

양산백전의 적강구조는 네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천상 선관 선녀가 옥황께 죄를 지어 인간계로 하강한다.
- ② 양상서의 아들로 태어난 산백이 운향사로 공부하러 갔을때 추상서의 딸은

남장을 하고 공부하러 오므로 둘이 만나 공부한다.

양대가 여자임이 밝혀져서 둘이 혼인하려고하나 추양대 부모의 반대로 이루지 못하고 둘이 각각 죽는다.

③ 두 혼령이 옥황 앞에 나아가 지상에서 미진했던 정을 잊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다시 인간계로 환생한다.

④ 인간계에서 환생하여 두사람은 혼인한뒤 산백이 문·무에 장원을 하고 두 사람은 부귀와 복락을 누리다가 팔십에 천상 선관 선녀와 함께 천상에 오른다.

이러한 적강구조는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이원구조의 순환속에서 모자라고 부족했던것을 성취하여 행복을 누리다가 천상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산백이 탄생하기 전에 선관으로 지낼 때가 천상계의 삶이었다면, 탄생하여 죽음까지 지상의 삶으로 볼 수 있다. 죽음을 통한 환생은 지하에서의 체험이면서 천상적인 성격을 지닌다. 왜냐하면 천상선관이었던 산백이 이 체험을 통하여 인간계로 환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지상에서 인간으로 다시 살아난 산백은 추양대와 혼인을 하고, 과거에도 나아가 급제를 함으로써 부귀를 얻게 된다. 또한 북방에 침입한 오랑캐도 정벌하여 더욱 탄탄한 자리를 확보한다. 산백은 조정에서도 인정받는 신하가 되고, 가정에서도 추양대와 더불어 세자녀를 거느린 가장으로서 행복을 만끽하다가 팔십세에 천상계로 올라 간다.

이로써 양산백전은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이원구조가 반복되면서 지상에서 완전하지 못했던 사랑과 행복이 죽음을 통하여 제거되고 또다시 환생함으로써 완전한 사랑을 이루며 행복을 성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산백의 죽음을 중심으로 하여 전반부에 나오는 지상계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지상계였다면 후반부에서의 지상계는 사랑의 결합을 성취하고 부귀와 공명만이 존재하는 지상계이다.

지상계는 부족했던 사랑을 성취한 곳이었다면, 천상계는 완전을 추구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천상은 질서와 모든것이 이룩되는 낙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완전한 질서의 장소이므로 사사로운 정이 통할수 없는 규율이 엄한 곳이기도 하다.

「전일 그대 삼신산 신선으로 더부러 풍경을 완상하며 세월을 보네더니 이월회일은 영본노군의 탄일이라 상제 잔치를 비설하스 질기실시 이 세 남초 반도초지로 참여 하였다가 일시춘정을 이기지 못하여 그대로 더부러 외통하를 상제 아르고 그대 낭인을 적강하미라 하더라」¹⁴⁾

산백은 천상선관이었는데 사사로운 정을 통한 죄로 인간계로 내려 온다. 이를 통하여 볼때 천상계는 완벽과 정해진 질서속에서 단하나의 오차도 인정하지 않으며 움직이는 장소인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미 정해진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동될 수 없으며 정해진 대로 시행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옥황상제의 허락으로 인간계에서 다시 환생할 수 있었던 산백과 양대는 결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제삼자와의 갈등은 표면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산백과 대결을 이루는 심의량은 추양대와 혼인한 뒤 신방에 들어 갔으나 하늘이 추양대를 옹위하므로 뜻을 펴지 못한다.

또한 추양대가 산백의 묘속으로 들어간뒤 묘를 파서 무덤을 따로 쓰지만 무덤에서 년출이 나와 서로 엮키므로 심생은 할수 없이 돌아간다. 돌아가는 길에 노인을 만나서 양산백과 추양대의 결합이 이미 정해진 것임을 듣고 물러난다. 이로써 산백과 대립되는 인물과의 갈등도 쉽게 해결이 된다. 이로 볼때 양산백의 애정성취는 죽음을 무릅쓰는 적극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미 하늘이 정한 것이기도 하여 제3자와의 대립이나 갈등이 쉽사리 해결된다.

14) 양산백전<경관 한남서립, 1920>, p. 27.

양산백전에 나타난 천상계와 지상계 二元構造는 엄격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천상계보다는, 현실에서의 삶을 긍정하고, 보다 가치있는 삶으로 보고 지상에서 사랑을 이루며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이상적인 현실세계를 그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양산백전은 현실주의적 소설이면서 이상주의적 소설로 볼수 있는데 이것은 적강형 소설의 특징이기도 하다.

적강소설은 현실생활을 중시하고 애정을 긍정하며 완전한 질서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등의 현실적 욕구나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는 작품이다. 그런 점에서 현실주의적 소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천상계와 지상계라고 하는 이원세계를 바탕으로 초월적 세계관이 가미되어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상주의적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다.¹⁵⁾

양산백이 환생한 뒤의 후반부는 산백이 과거에 급제하고, 오랑캐가 침범한 북방을 평정하고, 북평후를 제수받는 과정이 軍談으로 장황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백이 과거에 급제하고 오랑캐를 정벌하는 과정은 산백이 양대와 결합을 이룬 뒤 부귀를 누릴수 있는 필연적인 계기를 마련하여 준다.

이상에서 나타난 양산백전의 적강구조나 군담은 고소설을 애호하던 당시대인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유로운 사람이 엄격한 유교윤리에 의하여 억제될때 이를 상상의 세계에서나마 마음껏 이룩하고, 과거를 통하여 조정에 나아가 문무 겸비한 탁월한 선비를 그림으로서 당시대인의 이상적인 모습을 마음껏 즐길수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양산백의 일대기는 당시대인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선비의 일생이라고도 볼 수 있다.

15) 성현경,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학교 출판부, p. 172.

세경본풀이는 자청비가 농신으로 좌정하기 까지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세경본풀이의 서사단락은 크게 네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단락은 자청비의 탄생 둘째 단락은 자청비와 문도령의 만남과 이별 세째 단락은 자청비와 문도령의 재결합 네째 단락은 자청비 농신으로 좌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자청비의 탄생에서는 자청비 부모가 높은 혈통과 가문이 있는 집안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높은 혈통과 가문이 있는 집에서 아무 부러울것이 없었으나 오직 자식이 없어 걱정할때 시주받으러 온 중의 말을 듣고 원불수륙을 드린다. 원불수륙등의 축원과 기도, 또한 자청비를 낳기전의 태몽등은 자청비 탄생에 있어서 고귀한 탄생임을 알려 준다. 이러한 고귀한 탄생은 양산백전에서 양산백과 추양대의 고귀한 탄생과도 일치한다.

둘째 자청비와 문도령의 만남과 이별에서는 자청비는 주천강가에서 빨래하다가 문도령을 만난다. 문도령이 거무선생에게 공부하러 가는 것을 알고는 자청비가 집으로 가서 남장을 하고 나와 문도령과 함께 길을 떠난다.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한다. 이러한 점은 자청비와 문도령이 함께 공부하다가 문도령이 서수왕딸아기에게 장가가라는 편지를 받고 돌아가려 하자 자청비도 공부하던 것을 끝내고 문도령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문도령을 처음 만난 시냇가에 이르러 목욕이나 하고 가자고 해놓고는 버들잎에 여자임을 써놓으니 그제서야 문도령이 자청비가 여자인 줄 알고 인연을 맺는다.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은 자청비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양산백전에서는 부모에 의하여 두주인공의 혼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비하여, 세경본풀이에서는 자청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독자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문도령이 하늘 옥황으로 돌아간뒤 자청비에게 닥친 이별은 심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고난까지 겹친다. 이러한 고난에도 자청비는 적극적으로 극복의 의지를 보여 준다. 고난과 해결의 과정은 다섯번에 걸쳐서 나온다.

첫번째 고난은 하인 정수남으로 부터 당하는 고난이다.

① 자청비가 정수남이를 나무하러 보냈더니 소아흙마리·말아흙마리를 모두 잡아 먹고 집으로 돌아 오다가 연못에서 도끼와 옷까지 모두 잃고 와서 자청비에게 거짓으로 문도령 노는 것을 구경하다 그렇게 되었다고 말한다.

② 자청비가 정수남의 말을 듣고 문도령을 찾아 나섰으나 정수남이 거짓말을 한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자청비는 정수남에게 희롱만 당한다.

③ 자청비는 꾀로써 정수남을 달랬으나 정수남을 그냥 두면 해칠것 같아 정수남을 죽인다.

첫번째 고난은 자청비가 스스로 해결한다. 첫번째 고난으로 인하여 두번째 고난이 새로이 자청비에게 닥친다.

두번째 고난은 부모에게 받는 고난이다.

① 자청비가 정수남이를 살려 놓으니 부모는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하는 집안 망칠년이라고 내쫓는다.

② 자청비가 집에서 쫓겨나서 길에 있을때 주모 할망을 만나서 그의 수양딸이 된다.

③ 자청비는 주모할망이 짜는 문도령 혼수 비단을 대신 짜주었더니 하늘에서 문도령이 자청비를 만날수 있게 해달고 약속을 하여 자청비는 문도령을 만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네번째 고난은 자청비를 만나러 온 문도령과 자청비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에서 비롯된다.

① 문도령이 비단 짠 것을 보고 자청비를 만나러 하늘에서 내려 온다.

② 자청비는 기쁜 나머지 문도령에게 창틈으로 손가락을 내보라 하고 손가락을 바늘로 찌른다.

③ 손가락을 바늘로 찢린 문도령은 화가 나서 하늘 옥황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를 안 주모 할망이 대노하여 자청비를 쫓아 낸다.

네번째의 고난은 미해결 상태에 머문다. 그러나 다섯번째의 고난으로 이어지면서 사태는 변모되어 진다.

다섯째 고난은

① 자청비가 주모할망에게 쫓겨 나 머리를 깎고 중이 된다.

② 자청비가 시주하러 다니다가 옥황 선녀를 만난다. 자청비는 옥황선녀가 찾고 있는 문도령과 자청비가 목욕하던 물을 떠주고 선녀와함께 옥황에 올라 가게 된다.

③ 자청비는 옥황에 올라가 문도령 문앞에서 노래하다가 문도령에게 발견되어 만단정회를 나눈다.

이상의 고난에서 자청비는 적극적으로 고난들을 극복한다. 하인 정수남에게 당한 고난은 상전에 대한 하인의 반항으로 정수남은 상전을 감히 넘볼수 없는 하인 입장인데도 상전을 희롱하고 또한 겁간까지 하려고 했다. 이러한 것은 서민들의 양반에 대한 반항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서사무가가 구연되는 굿판은 주로 서민이 참여하는 장소이며 그들의 생활과 애환들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즐기는 생각이나 의식들이 내용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민들의 억눌린 감정들이 양반에 대한 반항의식등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라 할수 있다. 또한 네번째 고난과 해결과정에서 자청비는 문도령을 만나려는 일념만으로 생활해 왔는데 오히려 문도령이 자청비를 만나러 오자 자청비는 문도령을 시험해 보고 이로 인하여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만

남을 이루지 못한다. 이러한 점은 극적인 감동을 가져오는 요인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네번째 고난으로 인하여 자청비는 더욱 큰 고통에 빠져 들지만 결국 자청비는 다섯번째의 고난을 모두 극복하고 문도령과의 결합을 이루는 것이다.

자청비에게 닥친 고난들은 고리처럼 연결되어 하나의 고난이 해결되면 그로 인하여 새로운 고난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이 고난들은 인과관계를 이룬다. 또한 인과관계뿐 아니라 점층적인 형태로 나타나 다섯번째에서는 고난이 해결되고 자청비와 문도령이 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고난과 극복의 과정은 영웅의 일생과도 통한다고 볼 수 있다.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고난을 극복해 가는¹⁶⁾ 영웅들처럼 자청비도 계속되는 고난을 극복하고 농신이 되는 것은 영웅적인 삶이라 할 수 있다.

세번째 단락은 자청비와 문도령의 재결합이다. 자청비는 문도령과 이별을 한 뒤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지만 이를 극복하고 문도령과의 결합을 이룬다. 이들사이의 결합은 자청비가 고난을 극복하고 성취한 결합이기는 하나 이것은 둘만의 결합이며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합이기도 하다. 문도령의 부모로부터 인정되지 못한 결합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는 또다른 장애가 가로 놓인다. 자청비는 문도령 부모로부터 힘든 과제를 부여 받는다.

본없이 도포, 버선과 패자를 만들어 내고 또한 솟선섬을 불살라 놓고 그 위에 칼날을 서게하고 타나가는 힘든 과제가 자청비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과제는 하늘 옥황의 머느리가 될 수 있는 시험이며, 지상의 존재인 자청비와 천상의 존재인 문도령과의 결합을 이루려는데서 오는 고난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제를 해

16)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제10집, 1971, p. 179.

결해야만 하늘 옥황 문선왕의 머느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기도 하다. 자청비는 숫선섬을 피워 놓고 그위에 선칼을 타나가다가 발뒤꿈치를 베이는 고통도 당한다. 그러나 이고통으로 인하여 여자 나이 십오세되면 몸에 구실하는 法之法을 마련하기도 한다.

무서운 과제의 해결을 통하여 지상의 존재인 자청비는 드디어 천상의 존재인 문도령과의 결합을 이루고 천상적인 존재가 된다. 이러한 고난의 해결과정에서 자청비는 뒤에 신으로 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게 되며 또한 농신이 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로써 자청비와 문도령은 사회적으로도 공인을 받는 완전한 결합을 이룩한다. 자청비와 문도령의 재결합은 자청비의 적극적해결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들이 결합을 이룬 뒤에도 시련은 계속된다.

첫번째는

① 하늘 옥황에서 자청비가 착하다는 소문이 나서 삼천선비가 자청비를 푸대삼하려고 했다.

②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서천꽃발 말쑤 딸아기에게 가서 선보름 살고 나머지 후보름은 여기서 지내라 하고는 문도령을 말쑤 딸아기에게 보낸다.

③ 문도령이 말쑤 딸아기에게 가서 돌아오지 않으므로 자청비는 편지를 써 보냈더니 문도령이 급히 돌아 왔다.

두번째 시련은

① 궁안에서 잔치를 베풀고 문도령을 죽이려 할때 자청비가 이것을 알고 문도령에게 죽음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② 문도령이 궁안에서 죽음을 모면하고 나오다가 궁문앞에서 병신이 주는 술을 먹고 죽게 된다.

③ 자청비는 꾀로서 푸데쌈을 면하고 도환생꽃을 얻어다가 문도령을 살려 낸다.

세번째 시련은

① 고을에 세번란이 일어나고 나라에서는 난을 진압하는 자를 찾는 방이 나뉜다.

② 자청비가 멸망꽃을 구해다가 난을 진압한다.

③ 난을 진압한 자청비는 천제왕에게서 오곡과 열두 시만곡을 받는다.

이러한 두사람의 결합뒤에 닥친 시련에서도 자청비는 적극적인 해결을 하고 문도령과의 결합을 이룬다.

네번째 단락은 자청비가 농신으로 좌정하는 것이다.

자청비는 문도령과 결합은 이루지만 고난이 이어지고 그럴때마다 자청비는 적극적인 해결의 방법을 찾아 낸다. 이러한 고난 극복과정에서 자청비는 신으로 좌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으로써의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자청비가 신으로 될수 있는 근거로는 첫째 하늘 옥황 문선왕의 며느리가 되기 위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들 수 있다. 본없이 도포와 버선을 만들어 오는 과제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신으로 인정될수 있는 과제는 솟선섬에 불피워 놓은 그위에 칼을 세워 타나가는 과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보통사람으로서는 엄두도 낼수 없는 무서운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청비는 죽음을 각오하는 과제도 해결해내고 만다. 이러한 과제 해결로 말미암아 자청비는 신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다.

두번째 근거로는 고을에 일어난 세번란을 진압하는 것이다. 고을에 세번난이 일어 났을때 아무도 난을 진압하지 못하자 나라에서는 방을 붙인다. 이것을 알고 자청비는 서천꽃밭에서 멸망꽃을 구해다가 번란을 진압한다.

변란의 진압으로 인하여 자청비는 오곡과 열두시만곡을 받고 농신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자청비는 천제왕께 오곡과 열두시만곡을 받고 문도령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온다. 지상에 내려온 자청비는 죽어가는 정수남을 구하여 주고 牛馬를 관리하는 목축신으로 만든다.

세경본풀이가 농신이 된 자청비의 내력이 자청비의 활약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후반에 상세경 문도령, 중세경 자청비, 하세경 정수남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농사를 짓는데에는 농신의 역할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적당한 시기에 햇빛과 비를 내려 주어야 하고, 또한 가축의 힘을 빌어야만 제대로 농사를 지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 옥황의 아들 문도령은 상세경을 만들고 자청비는 중세경이 되고 우마를 관리하는 정수남은 목축신이 되어 농사짓는데 필요한 세가지 요소들이 중요시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세경본풀이의 서사단락을 통하여 볼때 세경본풀이는 무가로서 지니는 몇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로는 우선 구비문학으로서의 가변성을 들수 있다. 세경본풀이는 제주도에 서 활발하게 구연 전승되는 내용으로서 그내용이 풍부하며 자료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여러자료가 있다보니 그내용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것이 있고 빠지거나 변모된것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경본풀이의 내용상의 차이는 앞의 서사단락 분류로 미루기로 한다.

이러한 변모와 탈락된 것은 서사무가가 구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연상황에 따라서 내용이나 사건들이 변모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번째는 구연상의 외설성을 들 수 있다. 세경본풀이에는 외경스런 내용이 많이 등장한다. 이것은 무가가 구연되는 곳판이 주로 여성들 그중에서도 나이든 사

람이 모이는 장소이며 그들에게 흥미있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점잖은 도덕적 내용보다는 거칠고 비속한 내용들을 첨가하므로써 그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외설성과 함께 일부다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후반에 자청비가 문도령을 헤치려는 음모를 알고 문도령을 서천꽃밭 말쑥딸아이에게 보내는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오히려 여자 스스로 일부다처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번째는 서민 구연문학으로서의 반항의식을 들 수 있다.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반항의식은 하인인 정수남이 상전인 자청비를 조롱하고 능욕하려는 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감히 넘볼수 없는 상전을 마음껏 조롱하는 것은 상전에 대해 억눌렀던 감정을 풀어 버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가가 서민들이 즐겨 듣고 참여하던 문학형태로서 그 구연과정에서 서민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감정이 표출 될때 더욱 많은 흥미를 느낄수 있는 것이다.

이런점은 세경본풀이에서도 정수남이 상전에 반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네번째 특징으로는 자청비가 사랑에 적극성을 띤다는 점이다.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활약을 통하여 문도령과의 사랑을 이룬다.

자청비의 적극성은 제주도 여인의 적극적인 생활자세와도 일맥상통한다. 해녀 생활을 하든, 농사를 짓든 제주도 여인들은 거친 파도등 자연과의 대결에서 강하고 적극적인 생활력이 요구되었다. 또한 생활을 이끌어가는 주체이기도 하였다. 이 강한 생활력등이 세경본풀이에서는 자청비의 적극적인 활약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특징에서 세경본풀이는 神話라는 점에서 농신과 목축신의 내력을 담고 있다. 자청비는 농신이 되고 정수남은 태우리 즉 목축신이 된다.

서사무가가 신의 내력이라는 점에서 세경본풀이도 서사무가가 지닌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여타 동계 작품과의 비교

3.1 함경도 무가 문굿과 제주도 자청비 이야기

3.1.1 함경도 무가 문굿의 서사단락

함경도 문굿의 채록본은 두종류가 있는데 「관북지방무가」에 나오는 것과 한국 무가집(3)에 나오는 것이 있다. 전자는 강춘옥 구연으로 창과 말이 서로 엮이면서 구연되고 있다. 후자는 말과 창으로 구분되기는 하였으나 분명치 않다.

전자를 기본으로 하며 차이점은 ()에 첨가한다. 전자는 양산백전의 앞부분과 비슷하다. 서사단락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양산백은 양추양의 아들로써 낳을적에 지리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낳았다. 추영대는 추씨의 딸로서 그 아버지가 삼대독자로 내려 오다가 지리산에서 기도를 드린 후에 낳았다.

(김씨부인 이씨부인이 강변으로 빨래하러 갔다가 가마귀가 떨군 배를 나누어 먹고 각각 잉태하여 아이를 낳았다. 이씨부인은 딸을 낳았으나 딸이란 말을 아니하고 아들처럼 길렀다.)

2) 여덟살이 되었을때 양산백과 추양대는 은하사 절에 가서 십년 가까이 공부를 하였다.

(나이가 들어 금상절로 글공부를 가는데 치원대는 남복을 시켜서 한방에서 한 공부를 하였다. 치원대가 여자 몸매가 나오므로 양산복이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

래서 양산복이 여름에 해수욕을 가자고 했으나 알 수 없었고 오줌싸서 넘기기를 했으나 이것으로도 알 수 없었다.)

3) 양산백이 열여섯, 추양대가 열다섯 되던해에 한강에서 목욕하다가 血水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양산백은 추양대가 여자인 줄 알게 된다.

(양산복은 사흘 밤낮을 밝혀서 공부하자는 내기를 하여 치원대가 지쳐서 잠이 든 사이에 가슴에 손을 얹어 보고 여자임을 확인한다.)

4) 양산백이 추양대가 여자인줄 알고 청혼하였으나, 추양대는 부모를 두고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하고 부모와 의논하기 위하여 먼저 집으로 돌아온다. 추양대가 집에 돌아와 부모에게 양산백이 청혼하였다는 말을 하나, 부모는 귀가문에 시집보내겠다고 허락하지 않는다.

(치원대가 여자인 줄 알고 양산복이 고민이 되어 공부를 못하므로 먼저 집으로 돌아 간다.)

5) 양산백은 추양대를 못잊어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인사 드리니, 부모는 공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 산백에게 시제를 주고 글을 써보라 하니, 글속에 슬픔이 깃들어 있음을 보고 부모가 그까닭을 듣고 추양대집에 찾아 갔으나, 이미 다른 가문에 허혼한 뒤였다. 이소식을 듣고 양산백이 죽으며 추양대 다니는 길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집으로 돌아온 양산복은 병이 들어 앓다 죽을때 어머니에게 치원대 시집가는 길에 분산하여 달라는 소원을 말하고 죽는다. 양산복의 부모가 치원대집에 가서 딸이냐고 따지니 아니라고 부인한다.)

6) 추양대는 산백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몹시 슬퍼하였다.

(치원대는 부모가 정해준 곳으로 시집가기 위해 준비를 하면서 시집갈때 입고 갈 천에 찻물을 먹여 치마를 해입고 간다.)

7) 추양대가 시집가는 길에 산백의 묘에 이르러 소변을 핑계로 가마에서 내린다. 추양대가 산백의 묘앞에서 금봉채로 치니 묘가 갈라지고 추양대가 갈라진 묘속으로 들어가니 묘가 합하여졌다.

(위와 같다.)

8) 추양대 나삼자락이 밖에 나와 너울거리므로 잡아 당기니 나비가 되었다. (치마를 잡아 당기니 불부울 날고 묘가 합하여진뒤 조금 있으니 쌍무지개가 지고 둘이 하늘로 승천하였다.)

무가는 神의 일대기를 그리는데 함경도 문굿에서도 양산백과 추양대의 일대기가 전개되고 있다. 문굿에서는 어느 신이 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며 그 제차도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문굿에 나오는 양산백과 추양대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여 갈등하다가 두 주인공 모두 죽는 순애담으로 끝나고 있다.

두 작품의 세부적인 차이로는 관북지방무가(이하 자료1이라 칭한다)에서는 주인공의 탄생이 백일기도 후에 이루어진다. 한국무가집 (3) (이하 자료2라 칭한다)에서는 가마귀가 떨어진 배를 먹고 잉태하는 것으로 두작품 모두 특이한 탄생이라 할 수 있다.

여자주人公이 남장을 했다가 여자임이 밝혀지는 것도 자료1에서는 목욕하다가 血水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남주人公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는데 비하여 자료2에서는 남자주人公의 끊임없는 확인과정이 나오고 있다. 해수욕가자고 하거나, 오줌누기를 하거나, 그러다가 남주人公이 여주人公이 자는 틈에 가슴을 만져 보고 확인하게 된다.

여주人公이 여자임이 밝혀지고 남주人公이 이로 인하여 겪는 갈등이 자료1에서는 청혼을 하나 이루지 못하여 죽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료2는 그냥 앓다가 죽

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남주인공이 죽은뒤 여주인공의 태도는 자료1에서는 몹시 슬퍼하며 그리워하나 자료2는 잣물먹인 치마를 해입고 시집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주인공이 남주인공 무덤속으로 들어간뒤 자료1은 나비가 되고 자료2는 치마가 날리기만 하고 쌍무지개가 지면서 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3.1.2 제주도 자청비 이야기 서사단락

제주도에 전하여지는 자청비이야기는 두 편이 있다. 1959년에 나온 남국의 전설 (이하 자료1 이라 칭한다) 에 있는 것과 1985년에 나온 제주설화집성 (1)이다. (이하 자료2라 칭한다) 두자료 모두 주인공의 이름이 자청비와 문국성 문도령으로 되어 있다. 서사단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1을 주로하며 자료2와의 차이는()로 첨가한다.

1) 문국성 문도령이 활과 글을 연마하기 위하여 장안으로 가는 길에, 물길러 나온 가령나라 가령비 자청나다 자청비를 만난다. 문도령이 첫눈에 반하여 말을 걸려고 물을 청하니 자청비는 표주박에 물을 떠서 버들잎을 띄워 준다. 문도령이 얼굴은 예쁜데 마음이 안됐다고 하니 자청비는 바삐 가는 길인것 같아서 급히 먹다가 체할까봐 그렇게 했다고 한다.

문도령이 무안하여 길을 떠나려하자 자청비가 문도령에게 어디 가는 길인지 묻고 자기오라버니와 함께 가라고 하고는 집에가서 남복을 하고 온다.

(자청비가 물가에서 빨래할때 문국성 문도령이 서울로 글공부하러 가다가 그 옆을 지나게 되어 마실물을 달라고 하니 자청비는 물에다 버드나무 잎을 훑어 넣어 준다. 문도령이 마음씨가 나쁘다고 책망하니 자청비는 급히 먹다 체하면 글

공부도 할수 없다고 버드나무잎을 띄운 이유를 밝힌다. 그리고 자기오빠와 함께 가라고 하고는 남복을 입고 나와 문도령과 함께 공부하러 간다.

2) 문도령이 자청비를 보고 물 떠준 처녀로 의심하니 자청비는 남매가 꼭 닮았다고 활쏘기 내기를 해서 형제를 정하자 하여 자청비가 뒀이 된다. 오줌누기 내기를 하였는데도 자청비가 이기므로 문도령은 자청비가 남자인 줄 알게 되었다.

(문도령이 남복을 하고온 자청비를 보고 너무 닮았다고 한다. 글공부를 하면서도 한방에서 지내나 자청비는 경계를 지어 잠자리를 정하고 오줌싸서 넘기기를 했는데 자청비가 이기고 공부도 자청비가 훨씬 잘한다.)

3) 문도령에게 집에서 장가들러 오라는 연락이 와서 문도령은 하향하기로 결심한다. 자청비도 돌아 가겠다고 하여 함께 돌아 오다가 처음 만난 시냇가에 이르러서 자청비가 목욕이나 하고 가자고 문도령에게 말하고 버들잎에 여자임을 밝히는 내용을 적어 놓고 돌아가 버린다. 문도령이 버들잎을 보고 자청비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장가들지 않겠다고 한다. 또한 자청비에게도 부모가 정해준 곳으로는 장가들지 않겠다고 편지를 보낸다.

(자청비는 먼저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삼년동안 같이 공부해도 여자인줄 모르냐는 원망의 글을 남기고 간다.)

4) 문도령은 정혼한 날이 가까워지자 시체를 모처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혼인전날 자결한다.

(문도령은 자청비를 만나고 돌아와 병이 든다. 자청비는 정혼한 곳으로 시집을 가고 문도령은 소식을 듣고 이충격으로 죽는다.)

5) 자청비가 시집가다가 문도령의 무덤을 지날때 무덤으로 달려가 통곡을 하니 무덤이 갈라지고 이 무덤속으로 자청비가 뛰어든다. 깜짝 놀란 신랑이 치마

를 잡아 당기니 파리·모기·그밖의 벌레가 되세요한다.

(시집을 간 자청비가 문도령 생각이 나서 명주치마를 바레놓고 남편에게 친정
가자고 하여 무덤을 지날때 혼이 있거든 저세상에서 같이 살자로 소리를 지르니
무덤이 갈라진다. 그속으로 자청비가 들어 가고 치마를 당기니 모기가 되었다.)

제주도 자청비 이야기는 민담이 갖는 흥미성을 지닌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두주인공이 만나서 헤어지는 남녀이합담이다. 이것도 함경도 문굿과 같이 순
애담으로 끝나고 있다. 또한 자청비이야기에서는 자청비의 적극성과 재치가 나
타나며 자료1에서는 자청비의 혼이 파리·모기 그밖의 벌레가 되는 곤충기원담
으로 끝나고 있다. 함경도 문굿과 제주도 자청비 이야기의 차이는 도표와 같다.

	함경도 문굿		제주도 자청비 이야기	
	자료1	자료2	자료1	자료2
주인공의 이름	양산백 추양대	치원대 양산복	자청비·문국성문도령	자청비·문국성문도령
만나는 곳	은하사	금상절	우물가	빨래터
여자확인	목욕하다가 血水가 떠내려오는것을 보고 안다	남주인공이 가슴에 손을 얹어 확인한다.	자청비가 알려준다.	자청비가 알려준다.
남주인공의 죽음	놀라서 죽는다	상사병으로 죽는다	자결한다	상사병으로 죽는다.
여주인공이 묘가를때 쓰는 도구	금봉채	금봉채	통곡을 한다	소리를 지른다
여주인공이 무덤에 들어간뒤	나비가 된다	치마가 날린다	파리·모기가 된다	나비가 된다

3.2 중국의 양축설화와 태국의 따오싸른 령.

3.2.1 중국의 양축설화 서사단락

중국의 梁祝說話는 唐代에 생긴 것으로 오랫동안 중국에서 전승되던 설화이다. 이설화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전하여지는 자료로는 明代 馮夢龍이 지은 古今小說에 나오는 축영설화이다.

정규복님이 양산백전고에서¹⁷⁾ 실은 내용을 단락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 祝英臺는 常州人 義興人으로 어려서 학문을 좋아하고 餘杭의 문풍이 번성함을 듣고 유학하고자 하였으나 올케가 말리므로 남장을 하고 떠난다.
- 2) 우연히 蘇州人 梁山伯을 만나 더불어 공부하다가, 형제의 의를 맺고, 침식을 함께 하며 공부할때 산백은 영대를 여자로 의심하였으나 영대는 잘피해 나간다.
- 3) 축영대가 삼년간 공부하여 학문을 이룬뒤 헤어질때 산백에게 3개월이내로 찾아줄 것을 부탁하고 떠난다.
- 4) 安樂府의 馬씨가 축영대의 현숙함을 듣고 그의 오빠에게 청혼하니, 오빠가 이를 허락한다.
- 5) 양산백이 축영대를 5개월이 지나서 찾아와 보고 여자인줄 알고 축영대에게 청혼하니 馬씨와 정혼한 이유를 들어서 사양한다.
- 6) 양산백은 늦게 온것을 한탄하고 상사병에 걸려 죽을때에 安樂府 길가에 묻

17) 정규복, 梁山伯傳攷, 중국연구4집 (한국외국어 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1979), p. 45-47.

어 줄것을 부탁한다.

7) 축영대가 마씨에게 시집가다 安樂府길가에 이르니 천지가 캄캄하여지면서 산백의 혼령이 나타나, “구정을 잊지 않거든 돌봐 달라”고 하여, 축영대가 가마에서 뛰어 내리니 땅이 갈라지고 그속으로 축영대가 들어가 버렸다.

8) 頃刻에 천지가 밝아져서 그곳이 산백의 무덤임을 알았고 이들이 죽어서 부부가 된 줄 알게 되었다.

9) 찢어진 옷은 나비가 되었는데 붉은 것은 산백의 정령이고, 까만것은 영대의 정령이라 한다.

중국의 양축설화는 중국에서도 오랫동안 전승되었을뿐아니라 이웃나라에도 전파된 이야기이다. 한편 양축설화는 중국내에서도 여러작품을 이루는 소재로 사용되었는데, 그 예로는 元代의 祝英臺雜劇, 明代의 梁山伯寶卷佛典, 清代의 訪友記傳倚 등은 모두 양축설화에서 그 소재를 취한것이라 한다.¹⁸⁾

3.2.2 태국의 따오 싸른 령

태국의 따오 싸른 령도 중국의 양축설화와 비슷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History of Tai Literature¹⁹⁾에 간략하게 내용 소개한 것을 살펴 보기로 한다.

- 1) 중국에서 온 이야기로 소설로 전하는 것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2) 남장을 한, 소녀가 수도로 공부하러 가다가 소년을 만나서 우의(友義)가 깊어졌다.
- 3) 소녀는 상층계급이고, 소년은 가난하고 낮은 계급이었다.
- 4) 그들의 결혼은 소녀 부모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죽어서 서로 만났다.
- 5) 그들의 무덤에서는 나비가 날았다.

18) 朴晁義, 韓國古代小說論과 史, 1958, p. 442.

19) M.L.Manich Jumsai, History of Tai Literature, Bangkok, chalem nitpress, 1973.

간단한 내용으로 태국에서도 축영설화와 같은 이야기가 전하여지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3.3 위작품의 내용비교

함경도 문굿, 제주도 자청비 이야기, 중국의 양축설화, 태국의 따오 싸른 령은 그 서사내용이 같았다. 위작품의 서사단락에 나타난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남주인공과 남장한 여주인공이 만나서 공부한다.
- ② 두 주인공이 헤어진다.
- ③ 남장했던 여주인공이 여자임이 밝혀진다.
- ④ 여주인공이 다른곳으로 시집을 가게 된다.
- ⑤ 이로인하여 남주인공은 상사병으로 죽는다.
- ⑥ 남주인공의 갈라진 무덤속으로 여주인공이 들어가고 무덤은 합하여 진다.
- ⑦ 나비가 된다.

이러한 공통점을 통하여 볼때 네작품은 모두 男女離合後の 殉愛譚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녀이합담이면서 두주인공이 모두 죽고 마는 비극담으로 끝나고 있다.

함경도 문굿에서는 주인공의 일대기를 통하여 무불습합적인 성격을 지닌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다. 무불습합적인 모습은 주인공의 탄생에 백일기도 드리는 점, 공부하는 장소가 은하사이거나 금상절이라는 점이 불교적이라 한다면 巫歌로 불려진다는 점은 무속적 관습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문굿자료2에서는 양산백의 부모가 치원대집에 가서 “치원대가 남자라더니 여자인냐고 따지는 것”이 다른것에 보이지 않는 특이점이며, 치원대가 시집

갈때 치마를 찢을먹인 천으로 해입고 가는 것이 있다. 이것은 제주도 자청비이야기 자료2와도 비슷하다. 문굿자료2에서는 두 주인공의 무덤이 습하여진 뒤 쌍무지개가 지고 둘이 하늘로 승천하는 점도 문굿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자청비이야기는 두자료 모두 주인공의 탄생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대신 두주人公이 만나는 장면이 흥미있게 그려지고 있다. 만나는 장소가 물가로, 물을 떠주고 받으면서 알게 된다. 물속에 버들잎을 띄우 주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민담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다.²⁰⁾ 자청비 이야기에서는 자청비의 적극성을 엿볼수 있다. 문도령을 따라 자청비도 함께 공부하러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도령이 자청비를 여자로 의심하니까 자청비가 활쏘기를 해서 형·아우를 정하자 하고, 오줌누기를 해서 의심을 펼쳐 버리도록 한다. 문도령이 장가 들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려하자 자청비도 따라 나서 동행하다가 먼저 스스로 여자임을 밝힌다. 자료2에서는 자청비가 공부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주人公의 죽음이 여주人公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갈등에서 오는데 네작품 모두 상사병이 걸려서 죽는다. 그러나 제주도이야기에서는 자결하는 것으로 자료1에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 자청비이야기가 민담이 갖고 있는 흥미성이 강조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은 문도령의 무덤을 가를때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통곡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 민담의 소박성을 살펴볼 수 있다. 제주도 자청비 이야기는 두 주인공이 죽어서 파리 모기 나비가 됨으로써 곤충기원담을 이루고 있다.

함경도 문굿과 제주도 자청비이야기는 우리나라 최북단과 최남단이라는 점에

20) 구비문학대계 경남거창편, p. 324-325.

홍명희, 林巨正, (서울, 사계절, 1985), p. 46.

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두지역에서 이러한 내용이 무가와 설화에 남아 있는 것은 문화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古形의 文化가 잔존한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본다. 이는 다음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한편 함경도와 제주도 자료에서는 목욕하는 것과 오줌싸서 넘기기등 여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며, 무가 자료2와 자청비이야기 자료2에서는 치마감을 바레 놓는 내용이 있다.

중국의 양축설화에서는 유교적인 특성이 나타나는데 축영대가 공부하러 가려고 할때 올개가 男女七歲不同席不同食이라고 하면서 말리는 내용이 있다. 또 남 주인공과 대결되는 인물로 馬씨가 등장하며 부모를 대신한 오빠가 축영대의 혼담을 의논한다. 이로 볼때 양축설화에서는 부모대신 오빠나 올개가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축영대 시집가는 길에 산백의 혼령이 나타나는 점도 양축설화에서만 등장한다.

태국자료에서는 주인공들의 계급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여주인공은 상층계급으로 남주인공은 하층이며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네자료들은 중국의 양축설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3.4 중국강창문학의 영향

양축설화는 중국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서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되던 것이었다. 이러한 점을 중국 속문학을 대표하는 강창문학을 살펴본 뒤 양축설화 형성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강창(講唱)이란 불교의 민중 보급을 위하여 韻文과 散文을 엮섞어 부른 서사문학이었다. 최초의 강창은 唐代의 변문이었는데, 변문은 불경을 쉽게 해설하여

민중들에게 들려줌으로서 불교를 선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차츰 후대로 내려 오면서 불경과 관계 없는 故事를 연출하는 경우도 생겨 났다. 변문은 唐代에 인도로부터 일시에 들어와 한동안 성행하고 말았지만 宋代에는 그자체가 민간에 흘러 들어서 鼓子詞 諸宮調같은 새 문체로 분화하고 이들 유사 변문은 새 문체속에 보존되었다.

당대 변문에서 시작한 강창은 宋代에 이르러 화려한 발전을 함으로서 민중문학을 발흥케하였다. 송대에는 涯詞, 陶眞, 覆賺, 鼓子詞 諸宮調등의 이름으로 불리었는데 송대에 유행한 여러가지 강창의 대본은 뒤에 소설로 변한 것이 많았다. 송대의 說話는 歌唱보다도 講說로, 복잡한 故事를 얘기해 주는데 중점을 둔 기예였다. 이러한 설화중에는 처음부터 소설이라는 것이 있었고 소설을 강창하던 설화인의 대본을 話本이라 하는데 송대의 것으로 전해지는 것은 없다.

다만 明代인들의 重訂과 改編을 거친 것으로 대부분 산문화 된 것들이다. 이러한 話本으로는 洪楩의 <六十家小說> 무명씨의 <京本通俗小說> 馮夢龍의 <古今小說> <警世通>등에 수록된 것이 있는데 대부분 운문은 생략된 것들이다. 송대에는 강창이던 소설이 명대에는 본격적인 산문소설로 발전한다. 한편 소설과 관계 깊은 元대의 강창으로 詞話가 있는데 원대의 작품으로 전하여 지는 것은 없고 다만 원대의 雜劇중에 詞話가 인용되고 있을 뿐이다.

元대의 詞話도 明人들의 손을 거쳐 散文小說로 발전하였는데 명대중엽부터는 詞話라는 말이 散文小說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던 것 같다.

명대이후 강창의 주류는 寶卷 彈詞 鼓詞로 집약된다.²¹⁾ 보권은 당대 변문의 직계로 明・清代에 크게 유행하였다. 처음에는 종교적 권화의 방편으로 기존의 불

21) 김학주, 중국문학개론, 新雅社, 1977, p. 355-381

교 경전을 일반서민의 言語에 맞추어 개작하는 형태로 대중에게 불교를 보급하는데서 비롯되었다.

보권도 변문과 마찬가지로 민간고사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상당히 많아 일부는 민간고사이면서도 권선의 뜻을 담은 것들이 있으나 순전한 얘기만을 강창하는 작품도 적지 않았다. 〈孟姜仙女寶卷〉〈梁山泊寶卷〉〈現世寶卷〉〈何文秀寶卷〉등 이들 민간고사는 보권외에도 話本이나 희곡 소설 탄사로도 이미 민간에 널리 알려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보권은 민간으로 꾸준히 전승되어 오면서 민간설화를 수용하고 비종교적 성격으로 변모되어 탄사계소설등 중국 통속소설의 밑바탕이 되었다.

탄사는 지금까지도 중국 남부지방에 널리 유행되고 있는 강창으로 國音과 土音으로 대별된다. 국음은 역사물같은 대규모 장편이 많고 토음은 애정물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彈詞는 부인들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鼓詞는 북방의 강창을 대표하는 것으로 내용도 金戈鐵馬를 주제로 한 거작들이 많았다.

중국의 강창문학이 처음에 불교의 대중보급을 위하여 講과 唱으로 불려졌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찌기 이러한 형태들이 나타난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삼국시대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고 이러한 불교가 민중들에게 전할때 노래 불교경전을 실어서 전하는 경우가 있었다. 원효는 일찌기 俗服을 입고 스스로 小姓居士라 칭하고 무애가를 지어 세상에 流布하였는데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민중을 교화하고 다녀서 거지나 더벅머리개구장이 아이들까지도 모두 佛陀를 알고 염불을 할 수 있게 되었다.²²⁾

22)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和譜, 문화재관리국, 1969, 12, p. 50-51.

이것을 보면 민중에게 불교를 전달하기 위하여, 불경을 우리말로 된 노래로 불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삼국이 불교를 중국에서 들여 왔고 또한 신라가 통일을 이룬 뒤 중국과의 교류가 빈번하였던 점으로 보아 중국의 영향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편 唐代에 유행하던 강창의 한 유형으로 俗講이 있는데 속강에 관한 기록이 우리의 자료에서도 보이고 있다.

조선 숙종 때 중국어 학습서인 박통사를 번역 편찬한 朴通事諺解에 고려속강승에 관한 기록이 보이고 있다.²³⁾ 조선시대 기록물중에는 중국 돈황의 千佛洞 藏經속에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 발견되는 것들이 있다.

월인석보 상절부에 실려 있는 목련경과 같은 내용이 중국에서 <大目牛建連冥間救母變文併圖一卷併存>이라는 이름으로 전하여지고 있다.

또 중국 돈황에게 발견된 당태종입명기와 같은 내용이 제주도에서 세민황제 본풀이로 전하여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고소설로는 당태종전이 있다. 한편 唐代의 작품으로 돈황의 천불동에서 나온 唐三藏西天取經은 唐末에서부터 송·원대에 이르는 동안 推演을 거듭하여 오면서 후대에는 서유기가 되었는데 서유기속에는 당태종입명기가 있다. 이 당태종입명기는 우리나라 古小說 당태종전의 조형(祖型)중 가장 오랜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때 당태종입명기 당삼장서천취경 서유기등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세민황제본풀이나 당태종전 형성에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본다.²⁴⁾

또 석보상절속에 있는 안락국태자경은 고소설 안락국전과 제주도 서사무가 이공본풀이와 내용이 같다. 이공본풀이의 내용을 살펴 보면

① 김진국대감은 가난하고 원진국대감은 부자였는데 두사람에게는 모두 자녀

23) 閔泳珪, 元高麗俗講僧, 東方學志, 31集, 1982. 6, p. 1-2.

24) 장주근, 敍事巫歌의 始源과 民俗文藝史上的 位置, 문화인류학 5집 1972, p. 20-23.

가 없어서 동개남 은증절에 가서 기자 불공을 드린다.

② 김진국은 아들을 낳아 사라도령이라 이름짓고 원진국은 딸을 낳아 월광아미라 이름짓고 이들이 십오세가 되었을때 두사람은 혼인을 시킨다.

③ 사라도령에게 서천꽃발 꽃감관 부임의 명이 내려 월광아미도 같이 출발한다.

④ 도중에서 월광아미는 발병이 나서 견지 못하므로 제인장제 집에 종으로 팔아 두고 간다.

⑤ 월광아미는 제인장제의 동침강요를 핑계를 대서 피하고, 아들을 낳아 한락궁이라 부르며 키운다.

⑥ 한락궁은 제인장제에게 핍박을 받으며 자란 뒤에 아버지를 찾아 간다.

⑦ 사라도령은 그를 찾아온 한락궁과 자식임을 확인하고 아버지 찾으러 온 사 이에 어머니가 살해당한 사실을 알려 주고 각종 주화를 준다.

⑧ 한락궁은 주화를 갖고 와서 제인장제 일족을 멸망시키고 어머니를 소생시킨다.

⑨ 사라도령은 꽃감관을 살고 한락궁은 어머니와 영광스럽게 산다.²⁵⁾

이러한 내용의 무가로는 제주도 외에도 평안북도에서 신선세턴님청배라는 것이 전하여 지고 있다.

이상의 예등을 통해서 볼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불경이 들어오고, 이러한 불경의 민중보급과정에서 중국에서도 俗化되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불경이 딱딱한 불교적 내용으로만 전해지지 않고 고소설이나 서사무가 형태등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25) 상계서 p. 24.

한편 고소설 양산백전과 세경본풀이에 있는 내용이 중국의 보권중 「양산백보권」이나 「후양산백 축영대 환혼 단원기」등으로 전하여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들이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되던 것으로 양산백전과 세경본풀이는 또한 명대의 傳奇小說중에 환혼담등이 등장하는 내용들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두작품은 두주인공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뒤에 다시 환생하여 사랑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양축설화의 형성과 변모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다루기로 한다.

양산백전과 세경본풀이와 동계열의 작품인 함경도 문굿이나 제주도 자청비 이야기는 唐代와 송대에 이루어진 양축설화를 수용하여 두 주인공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두 혼령이 나비가 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이러한 순애담은 당대 고금소설속에 등재된 것과 내용이 같다. 이로써 볼때도 양산백전계열의 작품인 문굿과 자청비 이야기, 세경본풀이도 중국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목련경, 당태종전 계열의 작품, 안락국전 계열의 작품, 양산백전 계열의 작품등은 중국의 강창문학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강창문학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그 명칭이 바뀌고 체제가 변모되면서 소설이나 기타 민중문예들을 형성하였듯이 소설이나 서사무가 등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소설의 창작년대가 확실하지 않으며 서사무가 또한 구비 전승물이므로 국내에서의 영향의 수수관계를 확실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4. 양산백전과 세경본풀이의 비교

4.1 양산백전과 양산백보권과의 관련

양산백전은 중국에서 유행하던 양축설화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그러나 양산백전은 양축설화뿐만 아니라 化蝶說話 環魂說話가 포함되어 있다. 환혼설화가 덧붙여진 양축설화를 소재로 한 傳倚小說이 중국에서는 明代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실제로 朱從龍의 選이란 것을 알 뿐 전모를 알 수 없으며, 이와 비슷한 내용의 同窮記 環魂記 訪友記등은 選者도 알 수 없고, 여러 문헌에 산재된 것으로 이름만 전하여 지고 있다.²⁶⁾

강창문학중에서 明代의 寶卷에는 양산백전과 비슷한 것이 있다.

鄭篤의 중국속문학사(下)에서 보권류의 목록을 약간의 해설과 더불어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보인다.

① 梁山伯寶券<其中 祝英台 改扮男裝 去讀書 爲其嫂嫂所譏勅的一段 寫得得不壞> (그중에서 축영대가 남장을 하고 가서 공부한 것을 그 올개가 홍보는 대목은 썩 잘 표현되었다.)

② 後梁山伯 祝英台 還魂團圓記(這是一個荒唐的故事 寫梁山伯 祝英台 死後還魂 成爲帶兵的將官 後來功高就 山伯被封爲定國王 且於英台外 復娶二女爲妻 故亦名 三美圖) (이것은 일개 황당한 고사이며 양산백과 축영대가 사후에 환생해서 장관으로 공명을 떨치고 산백이 정국왕이 되어 축영대외에 두처를 거느렸기 때문에 삼미도라고도 한다)²⁷⁾

26) 정규복, 전제서, p. 37.

27) 장주근, 敘事巫歌의 始源과 民俗文藝史上的 位置, 문화인류학 5집, 197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산백전은 중국의 강창문학의 한종류인 보권중에 양산백보권이나 후양산백 축영대 환혼단원기와 비슷한 내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규복님의 양산백전고에서는 중국에서 유행하던 양축설화의 형성과 전파과정을 살피고, 양산백전의 형성은 중국에서도 양축설화의 전모를 지니고 있는 선실지나 고금정사에 소재된 양축설화나 고금소설의 양축설화가 전래되어 양산백전을 형성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논고에서는 양산백전은 중국 양축설화를 소재로 하여 형성되기는 하였으나, 양산백전은 한국 고소설의 구조에 맞게 변모된 창작소설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양산백전은 한국의 독창성을 지닌 창작소설로 보아 높이 평가할만한 작품이라고 하였다.²⁸⁾

그러나 중국에서도 양산백보권이나 후양산백 축영대 환혼 단원기등의 작품이 그 내용에서 환생을 통한 두사람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또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내용등이 있는 점으로 보아 양산백전은 독창성을 지닌 한국의 창작소설이기 보다는 중국 보권류의 한국적 변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안동준은 그의 논고에서²⁹⁾ 양산백전을 적강형 애정소설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양산백전은 양산백보권과 내용이 같은 것으로, 양산백보권의 한국판이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보권이 중국 명대에 유행하던 강창의 한 갈래이고 경판본 양산백전이 1920년경에 찍힌 점으로 보아 양산백전의 형성은 중국 당대의 양축설화뿐만 아니라 환혼설화가 첨가되었다는 명대의 전기소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제주도와 함경도에는 중국에서 일찌기 형성되었던 양축

28) 정규복, 상계서, p. 48-52.

29) 안동준, 적강형 애정소설의 형성과 변모, 문학연구7, 우리어문학회, 1988, p.

설화가 자청비 이야기나 문굿에서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문화의 중심지였던 서울에서는 오히려 양축설화보다 후대에 형성된 양산백보권류와 비슷한 양산백전이 남아 있다 이것은 문화의 중심지역 일수록 古形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유행하며 또한 이들이 쉽게 변모되어 가는데 비하여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주변 영역에서는 古形들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울에서는 후대에 형성된 양산백보권들의 영향으로 양산백전이 형성되어 지금까지 전하여지고, 함경도와 제주도에서는 먼저 형성되었던 양축설화들의 내용이 그대로 남아 전하여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산백전과 중국의 양산백보권류들과의 세부적인 차이는 양산백보권에서 올개가 홍보는 대목이 썩 잘 표현하였다는 해설이 있고, 후양산백 축영대 환혼단원기에서도 양산백이 정국왕이 되는 것등이 나오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본다.

4.2 세경본풀이의 제주도적 향토화

세경본풀이는 농신에 대한 내력담이다. 이 세경본풀이에는 양축설화와 같은 내용이 자청비의 일대기 속에서 전개 되고 있다. 세경본풀이에 나타나는 양축설화는 제주도적 특성을 지닌 신화로 변모되었다. 주인공의 이름이 양산백이나 추영대와는 전혀 다른 자청비와 문도령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농신이 되는 자청비의 일대기 속에서 양축설화는 男女雜合談이라는 형태로 존재하며 세부적 전개방법으로는 여주인공 자청비의 적극적인 활동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제주도 여인의 적극성 과도 관련이 있으리라 보이며 여성의 적극성은 여성수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의 적극성은 문도령과 인연을 맺는데서부

터 나타난다.

자청비의 적극성은 여성수난으로 이어진다. 여성수난은 여성의 적극성이 필요했던 사회적 요인이 있었고, 여성의 적극성이 필요했다는 것은 여성들에게는 바로 수난을 의미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³⁰⁾

자청비가 문도령과 헤어진 뒤 여러차례에 걸친 고난을 겪게 된다. 하인 정수남, 부모, 조모할망, 문도령등으로 부터 버림을 받거나 고난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 문도령까지도 고난을 주는 인물로 등장한다는 점은 특이하다. 즉 문도령은 자청비를 만나러 하늘 옥황으로부터 내려 오지만 자청비가 문도령의 손가락을 바늘로 찔러 피가 나자 문도령은 화를 내고 하늘옥황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이것은 자청비가 문도령에게서 받는 이중의 고난이라 할 수 있다.

서사문학 전통에서 나타나는 여성수난은 대부분이 혼사장애와 잉태로 인한 고난인데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여성수난은 혼사장애로 인한 형태이다.

신화적인 입장에서 볼때 여성수난은 農神이며 地母神인 자청비가 天神인 문도령과 결합하려는데서 오는 고난으로 자청비가 地神系존재였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수난이기도 하다. 여성수난은 동명왕신화의 유화, 제석본풀이의 당금애기 바리공주에 나타난 바리공주등으로 이어졌는데 이수난은 천신과 지신의 결합에서 이들이 地神系였기 때문에 당하는 수난이었다.³¹⁾

‘문도령을 만나기 위한 끊임없는 시련을 극복하고 자청비는 문도령을 만나지만 그들의 사랑은 하늘 옥황의 반대에 부딪친다. 그러므로 자청비는 다시 고난을 당

30)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문학연구7, 1988. p. 289. 여성의 적극성이 필요했던 사회적 요인으로 제주도에서는 여성들에게 많은 작업량의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많은 작업량에 비하여 여성들이 인정받고 대접받기보다는 오히려 천시받고 있는 점에서 그리고 생활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써 여성의 적극성이 요구되었다.

31)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서울: 문학사상사, 1980), p. 96.

하게 된다. 이번에 닥친 고난은 지금까지 겪은 고난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만큼 엄청난 것이다. 하늘 옥황은 자청비에게 숯 선섬을 불살라 놓고 그위에 칼을 세워 타나가는 과제를 부여한다. 자청비는 몸의 일부를 베어 내 가는 고통을 당하면서, 이를 해결하고 드디어 문도령과의 사랑을 이룬다. 죽음같은 고난의 극복 과정이 있었기에 신으로 좌정할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문도령과의 결합을 이룬 뒤에도 자청비는 끊임없이 고난을 받는다. 이미 죽음을 초월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도령을 죽음에서 보호하려 하였고, 문도령이 죽은 뒤에는 도환생꽃을 구해다가 문도령까지도 살려낸다.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한 자청비는 오곡과 열두시만곡을 받게 되고 농신이 된다.

이러한 자청비의 끊임없는 고난과 극복과정은 제주도 여인의 일상적인 삶과도 같다. 바다일을 하며 생활을 이끌어 가던 그들에게는 적극적인 생활태도가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고난의 극복과정을 통하여 보람과 희망을 갖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신을 자신들처럼 가난한 생활을 하고 고난받는 존재로 그림으로서 이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신으로 좌정하는데서 어떤 상승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본다.³²⁾

여성의 수난은 고난의 극복을 통하여 결국은 자신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임을 보여 주고 있다.

제주도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살펴 보기 위하여 제주도 민담 자청비 이야기와 세경본풀이를 비교하여 보기로 한다.

32) 강정식, 전계서, p. 294.

두작품의 공통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작품의 주인공이 문도령과 자청비이다. 도령이란 명칭은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장가들지 않은 남자를 부를때 姓氏밑에 도령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성씨와 도령이 숨쳐진 형태로 볼 수 있다.

文씨라는 성은 제주도에서 특히 많은 姓氏중의 하나이므로 문도령이라는 명칭은 두작품에서 제주도의 특색으로 변모된 이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남 녀 두 주인공이 만나는 장면이다. 물가에서 물을 떠줄때 여주인공이 물에 버들잎을 띄워 주면서 두사람의 만남이 무심히 지나지 않고 인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째 여주인공의 적극성이 드러난다. 이점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두작품 모두 두드러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주인공이 먼저 남주인공을 따라 나서고 또한 결합을 이루려고 시도한다. 이로 인하여 세경본풀이에서는 수난을 당하게 되며, 민담에서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 제주도에서 채록된 민담과 서사무가에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을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세경본풀이의 특징을 양산백전과 비교를 통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이들의 비교를 통하여 세경본풀이가 지닌 제주도적 특성이 더욱 확인해지리라 생각된다.

양산백전은 크게 적강구조와 군담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산백의 일생은 당시 서울에서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선비상을 양산백이라는 인물로 부각시켜 그려낸 것이다. 그러므로 양산백전을 읽는 대부분의 사대부계층들이 양산백전을 통하여 그들이 평소에 마음에 품고 있는 이상적인 인물상을 즐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유행하던 양산백전 계열의 보권을 소재로 우리

고소설이 갖고 있는 구성 특성에 맞게 짠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산백전은 우리의 독창적인 창작 소설이기 보다는 중국 양산백보권류등의 번안이나 개작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중국에서 유행하던 설화가 강창문학에 수용되면서 민간에서 널리 전승되다가 우리나라에도 건녀와 소설이 되기도 하고 세경본풀이와 같은 무가의 형성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세경본풀이는 중국의 설화와 같은 소재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양산백전과는 달리 제주도의 특성을 수용하여 변모되었다.

제주도의 특성이 드러나는 점은 무가로 불려지면서 그 내용면에서 가변성을 지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무가로 불려졌다는 것은 구연상황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이본마다 그내용의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것은 구연자가 청중의 호응을 얻기 위하여 청중의 기호에 맞게 좋아하는 내용은 더 넣기도 하고, 변형시키기도 하므로 그모습이 변화된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많은 가변성을 지니고 있다.

세경본풀이는 채록된 자료가 많으며, 그 내용 또한 다양한 것은 세경본풀이가 제주도에서 많은 사람이 즐겨듣는 무가였음을 알 수 있다.

세경본풀이의 제주도적 특성을 또 내용의 외설성을 들 수 있다.

서사무가가 굿판에서 불려지는 것으로 굿판을 찾는 청중들은 대부분 여자이며 그중에서도 나이든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면에서 내용은 자연 외설적으로 흐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세번째로는 서민들의 반항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굿자체가 서민들이 만들고 참여한 문학형태라는 점에서 세경본풀이는 서민들의 애환이 진솔하게 드러나고 그들의 억눌린 감정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세경본풀이는 중국의 양축설화가 제주도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변모되어, 본토에서 전하여지는 양산백전과는 다른 제주의 향토적 모습으로 변모되었다.

축영대설화는 중국내에서 형성 전파되면서 창이나 소설의 소재가 되어 강창문학의 많은 작품들을 산출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축영대설화를 소재로 한 소설로 양산백전을 들 수 있다면, 서민들이 즐기던 문학형태인 곳에서는 세경본풀이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양산백전이 사대부사회에 맞게 구성되어졌다면 세경본풀이에서는 서민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변모되었다.

5. 결 론

양산백전과 세경본풀이는 소재가 공통적인 점에서 서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제까지 두작품의 구체적인 대비가 없었다. 본고에서는 이점에 중점을 두어 두 작품의 서사단락의 구체적인 대비를 통하여 각각의 특성들을 살펴 보았다.

2장에서는 양산백전과 세경본풀이의 내용을 살펴 보았다. 두작품의 공통점으로는 두주인공이 탄생하고 서로 만나 동문수학하다가 이별을 겪게되고 다시 재결합하는 점이다. 각각의 특성으로는 양산백전에서는 양산백과 추양대의 일대기가 謫降構造를 통하여 두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었다. 양산백전에 나타난 적강구조는 지상세계를 이상적으로 그렸다. 지상에서의 삶을 긍정하므로서 사랑을 이루는 장소로 지상이 등장하며, 지상계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장소이기도 하여 지상계를 이상적인 현실세계로 그렸다. 또 후반에 나오는 군담을 통해

서 양산백은 부기와 영화를 누릴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양산백전은 전반에서 두사람의 사랑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후반에서는 양산백이 북방의 오랑캐를 정벌하고 출세하는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세경본풀이는 서사무가가 지니는 가변성으로 인하여 채록본마다 그내용이 조금씩 변모되었다. 그러나 그 중심내용은 같다.

또한 내용면에서는 외설스러운 내용이 많으며, 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므로 서민들의 반항의식이 하인 정수남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난다.

세번째로는 여주인공 자청비의 적극적인 활약상이 나타남으로써 제주도 여인의 적극성을 살필수 있었다.

이상의 세경본풀이는 여주인공 자청비가 농신이 되고 정수남이 목축신이 되는 신화로서의 특징을 가진 작품으로 양축설화가 변모되었다.

3장에서는 동계 서사무물의 내용을 함경도 문굿과 제주도 자청비 이야기, 중국의 양축설화 태국의 따오 싸른 령등을 통하여 살펴 보았다.

함경도 문굿에서는 남·녀주인공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남·녀이합담이 주인공의 일대기 형식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청비 이야기에서는 두주인공이 만났다가 헤어져 무덤에서 합해지면서 두혼령이 나비 또는 파리 모기가 되었다는 곤충기원담으로 전개되었다.

이상의 두작품들은 모두 남·녀 두주인공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비극담으로 되어 있다.

중국의 양축설화와 태국의 따오 싸른령도 비극담으로 끝나고 있는점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중국의 양축설화에서는 유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태국의 따오 싸른 령에서는 계급의식이 드러나고 있었다.

위의 네작품들은 모두 중국의 양축설화와 관련을 갖고 있다.

양산백전과 세경본풀이 그리고 이와와 동계 서사물들은 중국의 양축설화를 소재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었다.

양산백전과 세경본풀이에서는 두주인공의 사랑이 온갖 고난속에서도 결국 이루어져서 행복한 결말로 이루어 진다. 그러나 이와 동계의 서사물인 문굿과 자청비이야기, 양축설화, 따오 싸른 령등에서는 두주인공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채 죽는 순애담으로 되어 있다.

중국에서 강창문학은 중국의 속문학을 대표하는 문학장르로서 講과 唱을 섞어서 부르던 것으로서 초기에는 불교의 민중보급을 위하여 사용되다가 차츰 후대로 내려 오면서 중국의 민중문학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양축설화는 중국에서 널리 유행하던 이야기로서 중국속문학에 많은 소재를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양축설화는 당대에 성립되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남녀이합담이 후대로 전승되면서 化蝶說話 還魂說話등이 첨가되었다. 그래서 명대에는 양산백보권 같은 것이 형성되었다.

중국의 강창문학과 밀접한 교류를 갖고 형성되었던 우리나라 작품으로는 양산백전 이외에도 목련전, 당태종전, 안락국전등을 들수 있는데 이러한 작품은 같은 내용이 서사무가 세민황제본풀이와 이공본풀이등으로 전하여지고 있었다.

4장에서는 첫번째는 양산백전과 양산백보권과의 관계등을 살폈다. 양산백전은 양축설화뿐만아니라 화접설화, 환혼설화등이 첨가되어 보권제통의 작품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형성되었다. 따라서 양산백전은 양축설화 보다는 후대에 형성된 보권류들을 수용하여 우리의 모습을 지닌 것으로 개작한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는 세경본풀이의 향토화를 제주도 자청비 이야기와의 비교를 통해 그 공통점을 살펴 보고, 다시 양산백전과 비교하여 세경본풀이가 지닌 특징을 살펴 보았다. 제주도 자청비이야기인 민담과의 공통점으로는 주인공의 이름이 같았으

며 두주인공이 만나는 사연이 같았고, 또한 여주인공의 적극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양산백전과의 비교에서 세경본풀이는 무가가 지닌 구비문학으로서의 가변성과 그 내용의 외설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서민들의 반항의식등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으로 볼때 세경본풀이는 중국의 양축설화와 같은 소재를 갖고 있으면서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시킨 향토적인 모습으로 변모되어 전승되고 있었다.

참 고 문 헌

1. 자료

<무가>

김태곤, 韓國의 巫歌集(3), 集文堂, 1978.

임석재, 장주근, 관북지방무가, 중요무형문화재지정자료, 1965.

장주근, 韓國의 民間信仰(下), 金花舍, 1973.

赤松智城, 秋葉降, 朝鮮巫俗の研究, 屋號書店, 1937.

진성기, 남국의 무속서사시, 정음신서, 1980.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민담>

김영돈 현용준, 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탐라문화연구소, 1985.

진성기,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59.

M.L.Manich Jumsai, History of Tai Literature, Bangkok, Chalemnitpress, 1973.

<고소설>

양산백전, 京板, 翰南書林, 1920.

양산백전, 世昌書館發行

<저서>

김학주, 중국문학개론, 신아사, 1977.

김태준, 조선소설사, 淸進書館, 1933.

鄭 篤, 中國俗文學史, 台灣, 南務印書官, 1968.

서대석, 서사무가연구, 국문학연구, 1968.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성현경,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논문〉

강정식, 제주무가 이공본의 구비서사시적 성격, 문학연구7, 우리어문학연구회,
1988.

김화경, 세경본풀이의 신화학적 고찰, 한국학보28.

민영규, 元高麗俗講僧, 東方學志 31輯 연대국학연구원, 1982.

박경신, 제주도 무속신화의 몇가지 특징, 국어국문학 96.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장주근, 한국의 판소리와 중국의 강창문학, 경기어문학2집, 경기대국어국문학
회, 1981.

정규복, 양산백전攷, 중국연구4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1979.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10, 1971.

ABSTRACT

A Study of Segyongbonpri

CHo Hyun He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ong Gi University

YangSan baegjon and Segyong bonpri are the Works Which have the same material, however, they have their own respective feature. In YangSan baejon, love between the hero and the heroine do not end by their death. They accomplish their love and riches and honors through their rebirth.

In Segyong bonpri, the love of the hero and the heroine makes the heroine the God of farming through the Woman difficulties.

In Chap. 2, I looked into the narrative Settlements of the two works and their respective character by Way of the Comparison of the two. The first half of Yangsanbaejon has the Choggang Structure and the latter half of it mainly Consists of fight story. In Choggang Structure, the hero an officer in a fairy-land and the heroine, an angel, both commit a sin to the Heaven and are expelled to the earth. They meet again, however, Can't love each other, after then, by the Heaven's permission they are born again in this world and love each other. The hero pass state examinations and get wealth and rand through the war against the north savage.

In SegYoung bonpri, the personal history of the heroine, Chachongbi,

is narrated. she has to pass through terrible ordeals to get love and realize her love overcoming the difficulty and finally become the God of farming.

In Chap. 3, I Studied the four Works which has the same subject matter, HamKyong do Moongud, Chejudo Chaachongbi-fork tale, Chug Young—folktale in china, and Tao Sarn learnng in Thailand. In these four works, all the heroes and the heroines die not accomplishing their love. The ChugYoung—folk tale, a chinese tale handed down from days long long ago, appear in Chinese Vulgar literiture as a material. I came to Know that this Kind of story transmitted into our Country and Still remained in Hamkyoung do Moongud and Chejudo Chachongbi-fork tale also I found this story in Thailand. Meanwhile I could see, judging from their similarity, Yangsanbaegjon and Segyoungbonpri were formed by the transmission of this kind of story.

In Chap. 4, I Studied the Comparative meaning of Yangsanbaegjon and Segyong bonpri. The former was formed in Connection with a close relation to not only the chinese chugyoung—folktals but also Youngdeebokwon formed later ages.

The Segyongbonpri Can be regarded as the material of Chugyong—folktale reformed to peculiarity of chejudo. In the story of Chachongbi I could see the picularity of chejudo through the activity of women.

In Segyoung bonpri, the heroine become the God of farming through the possitive attitude of the Woman and the getting over all difficulties.